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c.i.t.i.e.s.
TRANSFERT D'INNOVATIONS ET DE CONNAISSANCES EN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사회연대경제의 지식 전수 및 혁신 확산을 위한 국제 센터

+

C.I.T.I.E.S.

도시의 공유 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들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c.i.t.i.e.s.
TRANSFERT D'INNOVATIONS ET DE CONNAISSANCES E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도시의 공유 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들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회연대경제의 지식 전수 및 혁신 확산을 위한 국제 센터

C.I.T.I.E.S.

저자들

이광석 Kwang-Suk Lee

이광석은 테크놀로지, 사회,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접점에 비판적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현재 문화연대 집행위원, 그리고, 테크놀로지 관련 평론을 각종 언론에 연재하며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 텍사스 오스틴 주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교수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커먼즈/공유 연구, 기술노동문화 연구, 플랫폼 협동주의 연구, 비판적 제작(메이커) 문화 등에 걸쳐 있다. 대표 저서로는 「데이터 사회 미학」, 「데이터 사회 비판」, 「사이방가르드」, 「디지털 야만」 등이 있고, 함께 쓴 대표 공저들로는 「불순한 테크놀로지」, 「현대 기술·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등이 있다.

모니카 베르나르디 Monica Bernardi

모니카 베르나르디는 밀라노-비 코카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도시관광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 사회에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도시학자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과 ICT가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며, 특히 스마트시티, 사회혁신, 그리고 공유 도시 및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다. LabGov / Urban Media Lab에서 프리랜서 편집자로 활동 중이며, 밀라노시의 '공유경제 전문가 및 운영자' 그룹 및 공공정책 혁신랩인 MilanoIN. Innovare x Includere (포괄을 위한 혁신)의 회원이다. 과거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 GRI-경기 연구원 방문 학자(2015), 보스턴 메드포드 터프츠 대학교 도시 및 환경 정책 및 계획학과 방문 학자(2017);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오픈 대학교 Dimmons Research Group 방문 학자(2019) 등이 있으며, 공유 도시의 공유 경제 및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박사 논문은 2016년에 린체이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젊은 인재상을 수상했다.

제레미 디아즈 Jérémy Diaz

퀘벡대 몬트리올캠퍼스의 지리학과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학 박사학위생이다. 도시계획 활동에 중점을 둔 연구그룹 꼴렉티브 빌 오트르망Collectif Villes Autrement의 공동창립자이다. 도시, 도시 생활 및 신기술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개발, 전략적 및 일시적인 도시주의,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및 도시 개발에서 혁신적인 공동체들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첫번째 공공 팹랩FabLab인 아떼네우스 데 파브리카씨오Ateneus de Fabricació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 중이다.

이현아 Hyun A Yi

퀘벡 몬트리올에 위치한 C.I.T.I.E.S.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합류한 후 주로 한국-퀘벡 간 지식전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바르셀로나 및 몬트리올 공유경제와 도시 커먼즈 서울 연수>를 기획 및 수행한 바 있다. 캐나다 맥길대에서 영문학 학사를, 토론토대학Munk school에서 국제학 석사Master of Global Affairs를 취득하였다. C.I.T.I.E.S. 이전에는 국제기구,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에서 연구와 현장활동을 오가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편집 이현아

번역 번역협동조합(박대진)

감수 김진환

디자인 노란들판

자금지원 이 연구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금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저작권: © CITIES-SSEC

다음과 같은 표기로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연구의 내용에 대한 짧은 인용은 허락 없이 가능하다.

Lee, K., Bernardi, M., Diaz, J., and Yi, H.(2020) 도시의 공유 기반 활동들과 커먼즈: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들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H. Yi, ed.) C.I.T.I.E.S

"To say that the city is a commons is to suggest that the city is a shared resource—open to, shared with, and belonging to many types of people."

Sheila R. Foster and Christian Iaione[1]

도시를 커먼즈라 함은,
도시를 공유된 자원 — 즉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 되어있고, 이들이 공유하고 소유하는 자원 — 이라 암시하는 것이다.

쉴라 R. 포스터,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

1 Ostrom in the Cit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Urban Commons

목차

저자들 2

이광석 Kwang-Suk Lee 2

모니카 베르나르디 Monica Bernardi 2

제레미 디아즈 Jérémy Diaz 2

이현아 Hyun A Yi 2

들어가는 말 6

연구 배경 8

개념 정의 9

커먼즈 9

도시 커먼즈 10

커먼즈로서의 도시 10

제1부 11

제1장 12

1.1 배경: 서울의 공유도시,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공유하는가? 12

1.2 서울 도시 커먼즈 개요: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 2019 C.I.T.I.E.S. 서울 연수를 통한 성찰들 13

제2장 공공정책 '공유도시 서울'의 도시커먼즈적 잠재 가능성 17

2.1. '공유도시 서울'의 내용 17

2.2. '공유도시 서울'의 성과 및 딜레마 18

2.3.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시사점: SWOT 분석 21

제2부 23

제3장 국제 사례 연구: 바르셀로나의 도시 커먼즈 24

3.1 바르셀로나 커먼즈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생태계 24

3.2 바르셀로나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공유 경제(협업 경제)와 관련되는가 25

3.3 사례 연구 27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 Ateneu popular 9 barris 28

솜 에네르지아 Som Energia 30

구이피넷 Guifi.net 32

3.4. 토론 34

제4장.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 36
들어가며 36
4.1. 퀘벡과 몬트리올 도시 커먼즈의 배경 37
4.1.1. 퀘벡은 커먼즈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가? 37
4.1.2.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는 시민참여와 도시계획을 넘어서는 운동인가? 37
4.1.3 몬트리올 도시커먼즈의 발전에 지역 공공기관이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38
4.2. 사례 연구 38
녹색 골목길 Ruelles vertes(Green Alleyways) 39
바띠망 세뜨 Bâtiment 7(Building 7) 41
로꼬모씨옹 LocoMotion 43
4.3 토론 44
4.4 결론 44

결론 45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 사례들이 주는 주요 교훈들 46
'공유도시 서울'로 향하는 길 47

참고 문헌 50

부록 1 : 2019년 C.I.T.I.E.S. 바르셀로나 및 몬트리올 서울 연수 일정 53

들어가는 말

모니카 베르나르디 Monica Bernardi

제레미 디아즈 Jérémy Diaz

이현아 Hyun A Yi

연구 배경

전 세계의 도시에서, 여러 학자, 시민사회 및 지자체의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벨기에 겐트 및 이탈리아 볼로냐는 커먼즈로의 이행을 이미 몇 년 전 시작했으며, 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2]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도시재생활동가, 마을공동체 조직 및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도시 내에서 공유자원 소유 및 관리의 실험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박원순 시장 집행부 아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9년 간 펼쳐 온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방향을 커먼즈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공유 사기업을 발굴 및 지원했던 기존의 공유도시 정책에서, '커먼즈로서의 도시', 즉, 서울을 " '분산되고 회복력 있는distributed and resilient' 도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019 미래혁신포럼 자료집). 서울시의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2019년 10월 1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개최된 제2회 서울미래혁신포럼에서 공식 표명되었다. 다수의 국외 및 국내 석학, 시민, 및 실행가들이 참여한 이 행사의 주제는 '공생공락의 도시 커먼즈를 위하여'였다.[3]

본 연구 내용은 주로 서울, 바르셀로나 및 몬트리올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도시적 협력을 통해 피어난 의논들과 관찰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 C.I.T.I.E.S. (씨티즈:사회연대경제의 지식 전수와 혁신 확산을 위한 국제 교류센터)에서 기획한 국제 연수를 통해 서울에서 5일 간 서울의 자원 공유 사례들을 방문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이하 '2019 C.I.T.I.E.S. 서울 연수').[4] 최근 시민사회와 서울시에서 보이고 있는 커먼즈에 대한 관심과, 2019 C.I.T.I.E.S. 서울 연수가 시기 적절하게 맞물려 본 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연수 참가자들의 기존 경험과 지식 및 서울 현지에서 방문한 사례들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 분석을 통합하여, 대안적인 공동체 삶의 방식으로써의 커먼즈에 대한 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더욱 많은 커먼즈에 대한 담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커먼즈'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1장은 앞서 언급한 2019 C.I.T.I.E.S. 서울 연수를 통해 도출한 서울의 도시 커먼즈의 특징, 그리고 2장은 자원 공유의 공공 정책적인 측면, 즉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다룬다. 3장과 4장은 해외 사례 분석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각각 세 개의 사례를 소개 및 분석한다. 도시 커먼즈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함으로, 사례 소개에 앞서 각 도시의 특수한 문화•정치적인 맥락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전 장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서울의 맥락에서 '도시로서의 커먼즈'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향들을 제안한다.

2 "A 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 Commons Transition, Sept 8, 2017 참조. http://commonstransition.org/commons-transition-plan-city-ghent/

3 서울미래혁신 포럼 공식 웹사이트 참조. http://www.seoulfif.co.kr/en/

4 C.I.T.I.E.S. 공식 웹사이트 참조. http://cities-ess.org/

개념 정의

커먼즈[5]

사전적으로 커먼즈(commons)는 영국 전통적 사회에서 공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며, 외부성과 집합적 행동의 실패로 인하여 자원고갈이 발생하게 된다는 1968년 가렛 하딘 Garrett Hardin의 Tragedy of the Commons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에 대하여 "규모가 충분히 커서 잠적인 수혜짜를 배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천연 또는 인공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고(Ostrom, 2015[1990] p. 30), 혁신적 작업의 공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작업은 공공 또는 민간 거버넌스의 이중성을 넘어서는 올바른 조건을 갖게 될 때 공동의 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6] 이후 "커먼즈"의 개념에 관한 이론들이 진화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그것의 정의를 다듬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2019년 C.I.T.I.E.S.에서 출간한 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커먼즈는 "공동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자원" (p.6)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코스타키스Kostakis, 바우엔스Bauwens와 니아로스Niaros(2015), 볼리어Bollier와 헬프리히Helfrich(2019) 등의 저자들은 커먼즈를 사용자 공동체가 자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동 관리하거나 공동 소유하는 공유 자원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저자들의 견해에서 "커머닝 없는, 다시 말해 능동적 공동생산과 자기 거버넌스 없는 커먼즈는 존재하지 않는다"(Bernardi, Iaione, Prevete 2018). 본질적으로 커먼즈는 단순히 공유 자원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재화, 공간 또는 공유 자원, 2) 사용자 공동체, [그리고] 3) 집단에 의한 자원 관리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모델"(Folco, 2019, p. 6). 커먼즈의 다양한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생활 커먼즈**: 농지, 숲, 어로 구역 등.
- **토지 커먼즈**: 공동체 토지 신탁, 주민들이 공동 관리하는 공원, 녹색 골목길 등.
- **디지털 커먼즈**: 위키피디아, 무료 소프트웨어.
- **비물질적 커먼즈**: 전통적 노하우, 지식 커먼즈.
- **시민적 커먼즈:** 상호부조 네트워크, 보충적 지역 통화, 공구 도서관 등.
- **생산 공동체**: 자주관리 회사, 소규모 작업장, 수리점.
- **국지적 커먼즈(공적 공간), 지방적 커먼즈(야생 보호구역), 또는 국제 커먼즈(남극 지역)**(Folco, 2019, p.7).

5 이 절은 C.I.T.I.E.S.가 발행한 집단 저작물인 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의 "Introduction and Mise en Contexte"에 바탕을 두고 있다.

6 오스트롬의 저작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1990)을 참조하라.

도시 커먼즈

도시 내에서 도시 커먼즈는 "공간, 기반시설, 장비, 지역 서비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커먼즈의 논리에 따라 기능하는" 동시에 시민, 사용자, 주민, 그리고 여타의 관련 단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Folco, 2019, p. 7). 도시의 중심성은 공유를 수월하게 할 수도 가로막을 수도 있다(Festa, 2016). 한편으로 도시의 밀도와 다양성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전략을 실험하기에 비옥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른 한 편으로 대도시는 개인주의와 익명성을 낳으며 이것은 공공선의 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난다. 실천적이면서도 이론적인 하나의 도전은 도시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유형의 공적 공유 자원의 관리를 위해 각각의 커먼즈에 대해 제도적 통제와 시민적 통제의 적절한 혼합을 창안하는 것이다(Harvey, 2012).

커먼즈로서의 도시

포스터와 이아이오네(2016)은 오스트롬의 설계원칙을 기반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들은 도시 거버넌스를 집합적 공유의 방식으로 도시 자원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플랫폼으로 재고한다. 실로 도시 커먼즈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복잡한 성격을 띤다. 그것은 도시가 자연적 커먼즈나 생활 커먼즈에 비해 더 복잡하고 혼잡한 동시에 과중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아이오네(2015)에 따르면 도시 커먼즈는 규칙적이거나 선형적인 하부구조로서 지역 사회들을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것의 쇠퇴는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쇠퇴를 결정한다. 도시의 쇠퇴는 또한 지역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설계 및 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이러한 설계 및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결과이자 그 원인이다. 그리하여 지역 공동체의 복지 및 도시 생활의 질에 기능적인 도시 공간과 서비스는 **공동의 도시 재화 및 서비스**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생산하고 돌보는 과정은 다양한 지역과 도시의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스트롬의 이론에 기반하고 도시적 차원의 상당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포스터와 이아이오네(2018)는 다섯 가지의 부가적 원칙을 정의했다. 이러한 원칙들은 "도시를 협업적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과 요인을 유형별로 설명한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 커먼즈는 이러한 협업적 공간 속에서 출현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다."

Co-City의 다섯 가지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집합적 거버넌스**Collective Governance: 도시 공동 재화의 관리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이러한 접근법은 (i) 사회적 혁신가, (ii) 공공 기관, (iii) 지식 제도, (iv) 기업, (v) 시민사회단체의 다섯 행위자를 기반으로 한다. 대화에 의한 공공 거버넌스 또는 공공-민간 거버넌스라는 전통적 접근법과 비교해 이것은 새로우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함축한다. 지역 공동체는 다른 관련 행위자와 협력함으로써 공유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집합적 거버넌스의 차원은 공유, 협업, 그리고 다중심성의 점증법에 따라 표현된다. 다중심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과 다른 네 개의 축 사이의 보다 복잡하고 계층화된 관계를 함축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생태계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2. **역량형성 국가**Enabling State: 커먼즈가 번성하고 관리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진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 정부.
3. **사회·경제적 자원 모으기**Pooling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다양한 형태의 자원 모으기 및 도시 환경에서 가능한 다섯 행위자 간의 협업의 존재".
4. **실험주의**Experimentalism: "도시 커먼즈를 관할하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적용되는 유연하면서도 반복될 수 있는 접근법"
5. **기술 정의**Tech Justice: 도시 커먼즈의 협력과 창설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접근성, 디지털 기반시설, 개방적 데이터 프로토콜(Iaione, 2017).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는 도시 자체를 커먼즈로, 또는 포스터와 이아이오네가 Co-City라 부르는 것으로 재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참여자들이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집합적 의사결정 및 공유되는 도시 자원의 공동 생산에 참여하는 기반시설이다. 그것은 개방적 데이터의 지원을 받으며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 Co-City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도시의 창조, 르페브르적 접근법에서 보자면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의 창조이다"(2018).

제1부

서울의 도시 커먼즈

제1장

이현아 Hyun A Yi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된 커먼즈의 유연한 정의 — (i) 공유되는 자원 및 (ii) 시민과 사용자에 의한 자원의 집합적 관리로 구성되는 다면적 개념 — 에 기반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 공유의 다양한 실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1 배경: 서울의 공유도시,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공유하는가?

(i) 자원의 공유, 그리고 (ii) 주민 집단에 의한 자원의 집합적 관리 및 사용이라는 커먼즈의 두 요소 속에 포함된 실천의 양상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영신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곶자왈(공동 자원)과 이를 관리하는 공동체 사이의 동학이 변화해 온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했다(정영신, 2017). 그는 커먼즈가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커먼즈는 그것을 둘러싼 변화하는 배경 속에서 존재한다(정영신, 2016). 전통적으로 공동체는 지역의 자원, 가장 빈번하게는 바다(어로), 숲(수렵과 채집), 우물(물)을 중심으로 결집되었으며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결정했다(정영신, 2017). 하지만 정영신은 일본 제국주의가 발흥하고 사유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들 자연적 커먼즈 중 많은 곳이 공공(정부) 또는 민간 소유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커먼즈와 공동체의 관계에 단절이 발생했음을 논증한다(같은 글). 달리 말해 자원의 거버넌스와 사용에 관한 공동체의 권리는 감소하거나 배제되었다.

공적 또는 사적 소유의 이분법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왔으며 소유권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자원 공유와 관련된 현재의 사업들 역시 유사한 이분법적 논리를 반영한다. 자원들은 대개 공적 제도(정부)나 민간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며 시민들은 사용자의 수준에 머물러 거버넌스 참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쏘카(승용차 공유),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공유), 따릉이(자전거 공유) 등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대표 공유 사업은 민간 기업에 의해 관리되며, 시민들은 서비스 이용자에 불과하다.[7]

"커먼즈"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서울에는 시민사회는 물론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자원 공유를 통해 집합성과 연대,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활동들이 존재한다. 지역화폐, 공동체은행, 도시재생, 도시 농업 등의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시민주도 사회운동은 각각 다른 배경과 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의 이념은 동일하다. 즉, 도시의 자원을 공공선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자산화[8] 운동에서 시민들은 재정적 자원

7 서울은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시市조례를 발표했다.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이후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8 주민자산화, 공동자산화, 지역자산화, 사회 자산 활용 등으로도 불린다.

을 공동으로 모으고 토지와 부동산을 구매해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해빗투게더Have-it Together 사회적 협동조합이다.[9] 이 단체는 토지가격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싸움의 과정에서 협동조합 세 군데가 함께 모여 결성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도시 자원 공유에 있어 커먼즈 논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한 지역에서 대안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커먼즈의 잠재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9년 10월의 한 주에서만 커먼즈와 관련된 세 건의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10] 그 외에 커먼즈 관련 행사 및 이니셔티브는 C.O.D.E.의 정기 커먼즈펍[11], 칼폴라니아시아연구소의 e-commons 지식공유지대[12],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이 공동 출범한 한국커먼즈네트워크의 커먼즈 워크숍[13]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커먼즈에 관한 이론적 및 현장 연구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 공유 실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절에서는 공유 경제와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실시된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 2019 C.I.T.I.E.S. 서울 연수의 참가자들이 성찰한 내용들을 종합한다.

1.2 서울 도시 커먼즈 개요: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 2019 C.I.T.I.E.S. 서울 연수를 통한 성찰들[14]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2019 C.I.T.I.E.S. 서울 연수는 세 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이 공유 경제와 도시 커먼즈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서울 현장의 실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자원 공유와 관련해 2019년 서울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하고 8군데의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 사업은 보다 신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을 지닌 것에서부터 보다 커먼즈 지향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었다(부록 1 참조). 5일에 걸친 9차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이 서울의 도시 커먼즈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커먼즈 사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데이터는 현재로서도 가용하지 않지만, 2019 C.I.T.I.E.S. 서울 연수 이후 진행된 참가자들의 결과보고 회의를 통해 우리는 네 가지 주안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자원 공유의 거버넌스, (2) 지역배경과 규모, (3) 기존 사회운동과의 연계, 그리고 (4) 국제적 협력이 그것이다.[15]

9 "[협동조합 여기!] #3. 지역자산화 위해 본격 닻 올린 '해빗투게더협동조합'" 협동조합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op_2012/221543855902

10 (1) 2019년 C.I.T.I.E.S. 기획 공유경제와 커먼즈 연수(9.30-10.4), (2) 2019년 서울시 주최 서울 미래혁신포럼(10.1), (3) 칼폴라니연구소 주최 제1회 글로벌 커먼즈 포럼(10.2)

11 C.O.D.E. 커먼즈펍 페이지 참조. http://codekorea.cc/board/c_pub

12 칼폴라니아시아연구소 e-commons 웹사이트 https://www.ecommons.or.kr/series/Review/list

13 커먼즈네트워크 공식 페이스북 참조. https://www.facebook.com/%EC%BB%A4%EB%A8%BC%EC%A6%88%EB%84%A4%ED%8A%B8%EC%9B%8C%ED%81%AC-2001100516832867/

14 배경, 법적 형식, 거버넌스 유형, 재정조달 구조, 그리고 목표와 영향력을 포함한 사례 연구들은『최종 보고서: 도시 커먼즈와 공유 경제를 주제로 한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 2019 C.I.T.I.E.S. 서울 연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이것은 참가자들이 관찰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분석 및 종합한 것이다.

1. 자원 공유의 거버넌스

연수 기간 방문한 사업들을 통해 네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식별할 수 있었다.

표. 2019년 서울 연수 방문 기관의 네 가지 거버넌스 유형 분류

거버넌스 형태	민관협력 (PPP)	민간 영리 기업	공공-공동체	커먼즈 (시민주도관리)
연수 기간 동안 직접 방문한 기관*		보스아고라 (BPF Korea) 헬스브릿지	상사4동 및 암사동 앵커시설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세운상가 (세운공공) 서울혁신파크 옥상공유	빈고 비빌기지
연수 기간 동안 컨퍼런스, 발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기관	쏘카 모두의 파킹 따릉이 공공시설 공유 등 (공유도시 서울)[16]			솔방울 커먼즈[17] 경의선공유지네트워크

* 그 외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분류 기관 : 모아 (마포공동체경제모아)

먼저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 속에서 시市정부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자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원은 스타트업 회사로터 소규모 영리 사회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기업들에 의해 관리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시민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여지는 많지 않다.

두 번째 형태의 거버넌스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경영권이 있는 특정 인물 혹은 소수에 의한 거버넌스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플랫폼인 보스아고라의 경우, 사업 주체인 BPF(Bos Platform Foundation) Korea의 고위 이사 셋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스아고라의 커먼즈예산(commons budget: 공공 사업을 위해 축적되는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는 콩그레스congress는 투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보스아고라의 모든 코인 보유자들이 아닌, 4만 코인 이상을 보유한 자들만 콩그레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성을 띄는 제한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헬스브릿지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소셜 벤처'이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이지만, 대표 1명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영리기업이다.

연수기간 확인된 세 번째 형태의 거버넌스는 **공공-공동체** 거버넌스였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에서는 공공 기관이 공동체 자문을 바탕으로 자원 공유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제시한 후 프로젝트 공고를 통해 공동체 주민 집단들이 자원 관리에 지원하도록 유도했다. 예컨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 재생과 커먼즈 간의 잠재적 시너지

16 연수 1일차에 서울시청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공유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17 2019년 서울미래혁신포럼에서 관련 활동가의 발표를 들었다.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공공 시설이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주민 집단들의 집단이 도시 재생 마을의 공유 자원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마을 앵커시설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18] PPP 거버넌스 모델과 비교해 시민들의 역할은 증가했지만 그들의 참여는 공공 기관이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과 사후 관리로 제한되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앵커시설 프로젝트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했다. 이러한 형태의 공공-공동체 거버넌스에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들이 있었다. 첫 번째 도전은 앵커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벌어진 주민 집단들 간의 반목이었다. 한 주민 단체가 시설 관리주체로서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해온 다른 주민단체(기성 집단)가 이 선발된 집단(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집단)의 지역 자원(시설)에 대한 권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관리 주체 재再선발을 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협력 모델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장기적 교착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019 서울 미래 혁신 포럼 기간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세 개의 궤도(생태·경제·사회적 이행)를 기반으로 한 "도시 이행"이 그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은 '커먼즈로서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동체 거버넌스는 시의 기존 공유도시 정책보다 새로 제안한 이 커먼즈 틀에 훨씬 더 잘 부합한다. 어떻게 공공 정책과 풀뿌리 결정을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커먼즈로서의 도시에 대한 의지가 단지 시장의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감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공 부문과 풀뿌리 공동체 부문 간의 성공적인 역할 균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이다.

연수기간 관찰할 수 있었던 네 번째 형태의 자원 공유 거버넌스는 순수한 **커먼즈**(시민 주도 거버넌스)였다. 연수 중 이 범주를 충족하는 사업은 두 개로 공동체 은행 빈고와 비빌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빈고는 비인가 협동조합 완전한 자립재정 금융 공동체 집단으로 여기서 회원들은 자본주의적 금융 구조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는 싸움으로 자신들의 예금을 빈고 은행에 저축한다. 최소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빈고 소속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 수행 공간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빈고 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정기 총회를 통해 집합적으로 내려진다. 애초 빈고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만들고자 했던 주거 부문 소규모 청년 활동가 집단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450명의 개인 회원들이 30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 집단을 결성하고 서울 안과 시 외곽에 있는 15 곳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비빌은 업사이클링 시민 사업으로 2010년 도시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서관 운영, 수공업 제작 공간, 사회적 경제 단체를 위한 공동작업 공간, 공유 주방 등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유치함으로써 비어 있는 공공 토지 부지(과거의 서울 석유 비축기지)를 재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했다.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가진 기관인 서울시와 오랜 협상 과정을 거친 후에 현재 비빌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은 기지 내 다른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석유 비축기지가 문화예술 공원으로 전환되어 2017년 전 시민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비빌은 시작 당시 완전한 커먼즈였다. 하지만 비빌은 현재 시에서 대여한 토지 및 공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한 시민 주도의 커먼즈가 아닌 공공-공동체 거버넌스의 요소들을 구현하고 있다.

공공-민간, 민간, 공공-공동체, 그리고 시민주도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업 현장들을 방문하고 난 후 참가자들은 자원 공유를 관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들에 관해 질문들을 쏟아냈다. 공공-민간 사업 및 공공-공동체 사업은 **하향식**top-down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커먼즈가 온전히 시민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과연 그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그 필요성에 관해 숙고했다.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의 경험은 때로는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가 "완벽한 커먼즈"의 사례가 되는 것 — 즉, 커먼즈의 모든 요소들을 구현하는 것 — 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커머닝' 과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참가자들의 토론 모임은 어떠한 최종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

18 앵커시설: 마을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i. 공공 부문은 여건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공유 사업이 보다 **시민 지향적이고 커먼즈 지향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도시에는 자체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 핵심은 공공 부문과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풀뿌리 공동체 부문간의 역할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은 한 생태계 내의 핵심적 성공 요인이다.

ii. 하지만 구체적 결과를 낳기 위해 제도적 개입은 또한 **강력한 시민 참여**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커먼즈 사업은 종종 몇몇 핵심 참여 시민들의 적극적 관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사업 출범 이후 프로젝트는 취약해진다. 기존 및 신규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커먼즈의 논리 — 즉, 사용자들과 주민들에 의한 공유 자원의 협업적 관리 — 를 자각하고 구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동기를 가진 주민 집단들의 결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배경과 규모

참가자들의 토론에서 확인된 두 번째 주제는 배경과 규모였다. **공유는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경제·정치·문화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왜, 그리고 어떻게 보다 영리 지향적인 플랫폼으로부터 보다 커먼즈 기반적인 사업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유형의 공유가 형성되는지가 드러난다. 커먼즈 기반 사업은 지역(즉, 도시나 마을)과 엄밀한 연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살아남는" 동시에 좋은 관행을 재생산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구 파견 기간 방문한 곳 중 시민과 사용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들은 규모가 작았다. 그들은 종종 아주 적은 인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미래 혁신 포럼 기간 소개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한 솔방울 커먼즈의 경우 참여 인원은 두 명에 불과했다. 크기를 키우고(활동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범위를 넓히는 것(다른 지역과 배경으로 활동을 재생산하는 것)은 서울의 커먼즈가 강력하게 공고화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3. 사회운동과의 연계

연수 기간 동안 커먼즈와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등의 관련 사회운동 사이의 기존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사4동과 암사동의 앵커시설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비빌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는 종종 풀뿌리의 필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 사회적 경제 단체는 민주적인 공동 거버넌스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성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공동체적인 커먼즈와 잘 부합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단체와 커먼즈의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국제적 협력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의 대안적 방식으로 커먼즈를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갖는 도시들 간의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공유 경제와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한 바로셀로나-몬트리올의 2019 C.I.T.I.E.S. 서울 연수 등의 교환 프로그램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추가적인 협력은 커먼즈 플랫폼 경제에 관한 연구, 또는 커먼즈 지향적 자원 공유와 관리를 위한 역량형성 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관한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2019 연구 파견 기간 이루어진 관찰과 이로부터 나온 성찰은 지금까지 공공 부문은 '자원 공유' 사업의 규제와 거버넌스에서 시민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게다가 도시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커먼즈를 보다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가왔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이 지닌 과거와 미래의 지향점,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제2장
공공정책 '공유도시 서울'의 도시커먼즈적 잠재 가능성

이광석 Kwang-suk Lee

2.1. '공유도시 서울'의 내용

"(공유도시 서울은)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인 '공유'(共有)가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2012년 9월에 박원순 서울 시장은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선언하고, 같은 해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안(2012. 12)을 재정했다.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공유경제의 '공유'라는 새로운 문제틀을 가져와 이를 매개로 도시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을 표명한다. 즉 서울시 공유도시의 비전은,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시·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정의 당면한 경제, 복지, 환경 등의 시급한 과제를 개선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도시 서울의 1기(2013~2016) 사업에서는, 도시 자원의 활용 극대화, 도시 자원 공유를 통해 시민들 사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복원, 그리고, 공유경제와 협력적 소비 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제 활성화라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해 보자면 이는 '도시 자원 활용 극대화',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가 1기 핵심 추진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2. 10. 참고) 공유도시 2기(2017~2020)는, 1기 사업에 이어서 기존의 도시문제 해결 및 해법 제시를 계속해 유지하는데 더해서 '행복한 시민의 삶'이란 새로운 목표 설정을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 자원 공유나 공유 인프라를 통해 교통, 주거, 환경, 경제 (일자리, 생활비 절감 등) 영역에서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 공유도시 정책 사업을 적극 알리고 확산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공유도시 2기 추진계획」, 2015. 4 참고),

공유도시 서울 정책 사업의 주관 기관은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사업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담당관'이며 관련 팀장 및 시 공무원 2명 정도가 공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공유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 부서들이나 서울시 지역 자치구가 주관 업무 부서가 되거나 그들과의 협력 사업인 경우도 있다. '공유' 개념의 대중적 확산 및 관련 사업들의 주목 효과를 위해 오픈형 공유도시 홍보 플랫폼 '공유허브(sharehub.kr)'를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공유 사업 및 사례 소식을 알려 특정 공유사업의 시민 인식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8~1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도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는 공유기업 단체 지정 및 소규모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정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정책이다.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주요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총 15명(민간 9인, 시의회 4인, 서울시 2인)의 '공유촉진위원회'가 유지되고 있고, 이들은 공유 기업과 단체 선별해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업단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공유 기업이나 단체 지정의 혜택은 주로 공유도시 서울 BI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업, 제도개선 등 행정지원, 컨설팅 밑 투자유치 지원 등이다. 2013~19년까지 165개(신규 122, 재지정 43)기관이 지정되었고, 121개 사업에 총 1,897백만원이 소요되었다. 2019. 12월 현재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및 단체는 재지정 포함해 42개 (공유허브 사이트 제공)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공유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의 추진배경은 "시 주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 단위로 공유를 확산"이 있다. 이 또한 사업비 신청 받아 공유촉진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총 394개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3,19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민간 공유 기업 및 단체나 자치구 공유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하면서, 제 1기 공유도시 서울사업은 자원 유형에 따라 주로 다섯 가지(물건, 공간, 사람, 시간, 정)의 공유 범주로 나눠 총 20개 공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2기 공유도시 서울사업으로 오면서 15개 사업 종료가 되고 5개 사업(나눔카, 아이옷·장난감 공유, 주차장공유, 도시민박, 한지붕세대공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9. 12월 현재 제 2기 공유도시 서울사업은 네 가지 공유 분야(물건, 공간, 재능·정보, 기반조성)로 나눠, 총 19개 사업 추진 중이며 이미 4개 사업은 종료된 상태다.

2.2. '공유도시 서울'의 성과 및 딜레마

서울시 주도 하에 도시 유휴 자산과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8여년 사이 '공유' 문화적 가치 확산 노력과 관련 지원책을 높이 살만하다. 게다가 서울시의 '공유도시'적 입지를 국내외 도시 혁신 브랜딩 이미지로 확산하는 효과 또한 크게 얻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유경제 도시협의체'로 주요 도시 간 협력, 국제 컨퍼런스,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공유도시 어워드' 등을 행하면서, 서울을 국제적인 '공유도시'로 부각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의 언론들이나 관련 해외 연구자들이나 시민정책가 및 활동가들이 서울의 공유도시 정책을 중요한 '공유' 도시 사례로 언급하는 것 또한 서울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 공유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수준도 꽤 향상됐다고 본다. 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는 거의 매년 「공유도시 시민인식 조사」 결과치를 내고 있다. 최근 공유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도시 인지도는 2019년 12월 현재 62.7%(잘 알고 있음 13.7%에 더해 이름만 들어봄 49.0%, 사례 수 1,000명)로 나타나 이전 시기들 보다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2019. 12.) 특히, 서울시 공유도시 세부 정책의 인지도 면에서 카 세어링, 공공자전거, 주차장공유, 공공시설개방, 공구대여소, 아이옷·장난감공유라는 6개 주요 정책에서 시민 인지도가 높고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 예를 들어, 2019년 표본조사의 인지도 순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5.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눔카(카셰어링)'(71.6%), '주차장 공유(거주자우선주차장, 부설주차장)'(53.6%), '공공데이터 개방'(33.2%), '공공 공간/시설 공유'(33.0%)'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특별시,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2019,12.)

공유도시 브랜딩과 '공유'문화에 대한 시민 인지도 확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공유도시 서울'의 공유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 혹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이미 서울시 공유사업의 주관 부처인 사회혁신담당관에서도 주지하는 바이기도 하다. 첫째, '공유도시'의 역사적 탄생 배경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사실상 공유도시 서울 선언은 2010년대 초반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던 공유경제의 시장 원리의 벤치마킹이라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신흥 시장 원리를 서울시 혁신 정책의 논리로 차용했던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공유경제의 발상지로 보자면, 미국 등은 주로 닷컴 시장의 주체들인 스타트업 플랫폼 업체들이 선도를 하고 공유 기제를 시장 중심으로 사회 저변에 관련 기술문화를 확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이를 차용한 공유도시 서울의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즉 당시 서울시는 미국식 공유경제의 상호 호혜나 공생의 가치에 관심 없는 이윤 독식 구조와 플랫폼에 기댄 취약노동 문제를 미리 읽

지 못했고, 단순히 쉐어링(형식)이 지닌 자원 배치의 효율성에 기댄 혁신적 가치만을 가져와 도시 정책에 응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공유경제의 '공유(sharing)'라는 새로운 자원 배치 방식을 시정에 가져와 이를 매개로 도시문제를 완화 혹은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염두에 두었다.이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배치 논리를 시 정부 정책 영역으로 가져와 도시 자원 효율성 효과를 꾀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결국, 서구 공유경제 혁신의 '사적(私有)' 모델이 서울시의 '공적(公有)' 사업 모델로 변형된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애초 4차 산업혁명의 꾸러미 중 핵심 요소인 '공유경제' 모델을 도시 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 방식으로 끌어오려는 공적 의도 자체는 초기에는 꽤 참신한 도시 기획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플랫폼 노동이란 새로운 노동 종속과 플랫폼 독점이윤이란 또 다른 노동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남아도는 자원의 배치와 매칭에 의거한 '합리적 소비'가 허울뿐이란 사실이 점점 드러나게 됐다. 국내 공유도시 서울 정책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정세적으로 좀 더 적극적 의미의 커먼즈적 호혜나 상생과는 크게 거리감이 있는 도시 자원 '공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근거를 두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애초 시 정부의 사회 혁신에 대한 의욕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공유도시' 사업이 자원 배치의 주류 공유 경제 모델이나 주류 시장의 플랫폼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흡사해져 간 것이다. 유휴 자원을 중개하는 효율적 기업과 단체 행위만을 중요하게 보면서,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민 주도의 자원 공동 생산 능력을 놓치는 측면이 존재했다. 즉 공유의 비판적 의미인 사회적 호혜와 공생의 문화 확산과는 무관하게, 약탈의 공유경제 시장 모델이나 시 정부의 시혜적 공적 서비스 모델로 후퇴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다 근원적 문제는 서울시 공유도시 선언에서도 나타나지만, '쉐어링' 개념의 국내 번역에서 오는 혼선이, 정책적인 혼선까지 이어진 정황이 존재한다. '쉐어링' 개념은 단순히 서로 남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적화해 매칭하는 행위만을 뜻하고, '공유경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플랫폼이란 기술 장치를 통해서 거래되는 유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치에 방점이 찍힌다. 이는 서로 나누는 행위를 빼곤 공동 소유나 분배, 더 나아가 사회 증여 효과가 거의 없다. '쉐어링'은 사실상 그 시장 역할에서 보자면 자원 '중개(relaying)' 정도로 한국어 번역을 했어야 했다. 반면 '공유'(共有)는 쉐어링보다는 커먼즈에 더 가까운 용어이다. 그런데, 국내에 '쉐어링 경제' 개념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중개' 대신 이를 '공유'라 명기하면서 '공유경제'란 말이 보편어가 됐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에게 '공유'란 말은 혼동스런 오염어가 된 셈이다. 왜냐하면 오래된 호혜와 상생의 전통에서 보자면 '공유'는 서구의 '커먼즈'와 형제 개념이어야 하지만, '공유경제'란 번역어로 인해 그 의미가 신종 플랫폼 공유기업들의 브로커 시장이란 의미 맥락이 함께 뒤섞여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유도시 서울'의 영어식 표기법은 'Sharing City Seoul'이고 초기 선언문이나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은 '쉐어링' 경제 모델로부터 차용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는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안 「제 2조 공유」에서의 다음과 같은 정의이다.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완벽하게 공유경제의 '쉐어링'의 정의법과 일치한다. 문제는, 2조 정의나 곳곳에 '공유'의 한자어 '共有'를 병기해 쓰면서 이를 읽는 이에게 마치 공유도시 서울이 '커먼즈'적 가치를 지향하는 듯한 혼동이나 착각을 주고 있다는데 있다. 분명히 할 것은, 적어도 초창기였던 공유도시 1기 정책은 공유경제의 공적 응용에 관심사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시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쉐어'(중개)과 '커먼즈'(공유)을 구분할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앞서 봤던 서구 '공유경제' 모델을 서울시에 이식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공유도시 서울 촉진위원이나 국외자문단을 보더라도, 이들의 '공유' 관점이나 전망이 '협력적 소비'에만 주로 머물러 있는 국내외 공유 경제 업계나 스타트업 대표나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좀 더 시민 도시 공동생산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커먼즈 정책 지향의 해외 자문단이나 커먼즈 이론가, 실천가, 학자들의 촉진위원회 배치에서 결핍을 보여주고 있다.

중개 플랫폼 사업체들의 국내 시장 교란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동시에 '커먼즈' 개념과 이론이 국내에 차츰 소개되면서, 불과 수 년 전부터 '공유' 개념에 대한 사회적 제고가 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커먼즈'란 서구 용어법이 낯설고, 이미 '공유'가 '공유경제'에 선점되어 오염된 상태라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커먼즈'는 '공유지', 그리고, '공통적인 것', '공통재(계)', '공동자원(론)', '시민자산', '공유자원', '사회연대경제' 등으로 번역되거나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셋째, '공유'의 개념적 혼선 아래 서울시는 '공유 경제' 모델을 도시 정책에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본질적으로 공유경제의 사적 논리를 갖고, 국내 도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혁신의 공적인 정책 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실제 '공유 서울'의 핵심 사업 내용은, 시장 유휴자원을 나누는 플랫폼 공유경제 유형과 유사하게, 단순히 도시 유휴 자원을 나누는 플랫폼 중개 사업체와 단체들을 선별해 지정하고 일부는 매년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도시 자원의 기능적 교류나 공유경제의 효율성만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떻게 시민 주도의 공동 협력이나 공동 생산의 방식을 매개할 것인가의 시정부의 고민은 발견하기 어렵다.
공유도시 사업 내용에서 지금까지 가장 왕성한 의제는, 서울형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 주차장 공유, 공구도서관, 나눔카, 옷·장난감 공유, 공공시설 개방 정도로 파악된다. 이 사업들 대부분이 시민 주도형 '공유'라기 보다는 공공 대여, 렌트, 물물교환 등의 공적 시민 서비스 사업 영역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주 드물게 커먼즈적 의미를 지닌 사례들(예컨대, 숙박, 임대 공간, 혼밥 공유 등의 유휴 '공간' 공유 방식이나 한지붕 다가족' '한지붕 세대 공감' 개념의 노인돌봄형 셰어하우스 등 긍정적 효과 발생)을 제외하곤, 대체로 시민 주도의 '커먼즈'적 호혜 가치 지향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서울시 내부 관련 부서들에서나 자치구들에서 공유도시 정책을 진행하면서 가치 추구의 혼선이나 충돌이 잦다.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부서별로 공유 사업을 담당하거나 협력하더라도 '공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심지어는 '공유'에 대한 의식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무인 대여하는 시스템인 '따릉이'는 서울혁신기획관의 핵심 공유 정책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주관 부서이다. 이 경우에 각 부서들은 공유 사업에 대한 해석이 크게 갈라진다. 시설공단이나 도시교통실은 대민 공적 서비스로 '따릉이'를 접근한다. 반면 혁신기획관은 이를 일종의 공유도시 사업 개념으로 충실히 다루려 한다. 한계는 이용 시민들이 좀 더 자전거 파손이나 방치 등의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서 멈춘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공통된 시각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따릉이를 관리하는 등 좀 더 자율의 커먼즈적 공동 참여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용 시민을 서비스 고객 정도로 바라보는 공공적 시각에 멈춰있다는 점이다. (「2019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2019. 12.)

다섯째, 도시 '커먼즈' 정책 인식과 추진에 있어서, 전문 인력 부족이나 실행 경험 부족도 큰 문제다. 처음부터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이나 현재 진행되는 '공유'의 비전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면서, 지원 대상 단체나 기업들에도 주류 공유경제 기업에서부터 커뮤니티 호혜성이 존재하는 단체 활동까지 다소 폭넓게 스펙트럼이 혼재해 있었다. 공유도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촉된 공유촉진위원들 또한 '공유(커먼즈) 전문 이론가, 실천가나 현장 활동가는 찾기가 어렵고, 담당 혁신 공무원들 또한 공유(쉐어링)와 커먼즈 사이 개념이나 정책상 혼선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도시 커먼즈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실제 지정 및 지원 대상을 공모 선정하는데 특별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커먼즈 원칙이나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객관적 측정 지표 등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여섯째,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단위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유형에 대한 최근 이해도도 매우 떨어진다. 주로 물질 경제와 그 가운데 도시 공동 물질자원 중심의 사고틀에 맞춰 있기에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반 공유 방식이나 유형을 어떻게 기존의 정책 지원 모델에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나 전문가적 논의가 부재하다. '공유' 개념의 기술 인프라이자 자원 배치의 중요한 기술적 기제인 플랫폼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점이 정리될 필요가 있고, 최근 해외 각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부상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주류 시장에서 플랫폼 기술 기반형 공유경제 시장질서의 변화나 플랫폼노동 문제(카풀과 배달노동 등 플랫폼경제 성장)가 사회적으로 크난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떤 서울시의 공유도시적 해법이나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유도시' 사업이 민간이나 지역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빛바래는 경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공유도시 서울 정책은 8년여 사업을 마치는 시점에까지 여전히 시장(私有)과 혁신(公有)의 어색한 동거에 기초하는 딜레마를 아직 깨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공유(쉐어)도시 서울은,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 남아도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공유경제에 주로 영향을 받았고, 이를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시 공유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였다는 점에서 최초 혁신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그것이 낳을 수 있는 정책 부작용과 관점의 한계를 충분히 살피는데 크게 부족했다. 즉 시민 자율의 공동생

산 가치 개발 노력 보다는 시장 자원 공유의 효율성과 편리에 주로 목표를 두면서 형식(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시민 서비스 인지도 향상)만 얻고 중요한 내용(시민 공동 자원의 자율적 생산이라는 공생공락 가치)을 놓쳐버렸다.
공유도시 서울의 현재 '공유' 정책 기조를 SWOT 분석표로 정리해보았다. 이미 앞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터다. 다만 기협과 위협 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강점과 약점에서 제기됐던 내용을 넘어서려 한다면 그것이 기회 요인일 것이고, 그 한계에 계속해 갇혀있다면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조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다행히 서울시 내·외부적으로 공유(커먼즈)의 시민 친화적 커먼즈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유도시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작 시민간 협력이 빠져있는 공유도시 정책 사업들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공유도시 사업의 재점검을 통해 좀 더 시민 주도의 '커먼즈(共有)'적 가치를 담는 도시 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하게는, 그 전환점에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화)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되었던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주최 <2019 미래혁신포럼: 공생공락의 도시 커먼즈를 위하여>의 국제 컨퍼런스와 관련 부대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

2.3.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시사점: SWOT 분석

강점	• 최초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인 '공유경제' 모델을 도시 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 방식으로 끌어오려는 공적 의도 지닌 참신한 도시 기획 • 서울시 공유도시 인지도 상승(특히 서울시 자체 공유사업 시민인지도 증가) • 국제적으로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 존재 • 혁신 지향의 정책 공무원 및 전문 자문가 네트워크 합류 중 • 커먼즈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심 형성과 공유도시의 도시커먼즈로의 전환 노력	**약점**	• 쉐어링과 커머닝의 개념적 혼용과 오용 존재 (실제 커머닝 없는 도시 자원 효율성 증대 효과에 집중) • 공유 사업의 소관부서들이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 지향 어려움 • '공유촉진위원회' 구성과 이들에 의한 '공유'기업과 단체 지정 및 지원정책에 있어서 객관적 선정 기준이나 가치 지향 담보 어려움 • 6개 주요 정책(카 세어링, 공공자전거, 주차장공유, 공공시설개방, 공구대여소, 아이옷·장난감공유) 등 호혜성 없는 도시 자원 '공유'의 한계
기회	• 국내 커먼즈 가치 실험 사례들의 발굴을 통해 시민 고유 '공유' 언어나 개념 창안 • 1,2기 사업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혁신 공유도시 경험들(비영리 지정 단체 활동)의 장점 수용 • 시민을 수혜자이자 고객으로 보던 접근 대신 시민 주도 도시 자원의 공동 생산과 협력의 기반 마련 • 주류 플랫폼 기술 기반형 공유경제 시장질서의 변화나 문제 (카풀과 플랫폼노동)에 개입 및 지원 방안 마련 • 3기 정책에서 국내 도시커먼즈 사례 발굴을 통해 지원체 마련하고 커먼즈 생태계 질적 도약할 수 있는 계기 존재	**위협**	• 공공, 공유, 커먼즈 사이의 개념 및 정책 적용시 혼동 지속적으로 존재 • 성과주의적 성공 사례 발굴이나 가시적 성과나 정책 사례 집착할 공산이 큼 • 공유 문화 형성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치 방식이나 협치 구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 서울시 관련 사업이나 리더쉽이 바뀌면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국내 공무원 조직문화도 관건

<표 1> 공유도시 서울 SWOT 분석

대표적인 국내외 커먼즈 이론가와 시민 활동가들이 함께 하면서, 기존의 공유도시 접근법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본 합의를 이뤘다. 좀 더 커먼즈 개념의 이해, 사업 부처간 공동 이해, 사업 방식과 추진 방향을 제대로 잡아 '도시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좀 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서울시 공유도시 사업은 올해 현 박시장 체제 아래 3기(2021~2024)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서울시는 1, 2기 공유도시 사업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커먼즈'적 가치, 특히 지배적 시장 논리로서 공유경제의 효율적 시장 자원 배치론에서 벗어나 공유 자원의 시민 주도형 자원 관리나 협동 방식을 흡수하려 한다. 실제적 나눔이나 호혜 없는 현재 공유의 비즈니스 정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의 공적 역할을 계속해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부

국제 사례 연구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

제3장
국제 사례 연구: 바르셀로나의 도시 커먼즈

모니카 베르나르디 Monica Bernardi

3.1 바르셀로나 커먼즈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생태계

도시 커먼즈의 주제와 관련해 바르셀로나시市는 이른바 "커먼즈로서의 도시"(Foster and Iaione, 2016)를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다. 이는 "준거틀 및 일단의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는 커먼즈의 잠재력과 관련해 특히 그러하다. 이를 통해 커먼즈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형태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다"(같은 글, p. 185). 도시가 시민들(커머너즈)에 의한 상향적 발현성과 철저한 도시행정 체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실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커먼즈 지향적 접근법을 지니고 도시 환경의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능동적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 이러한 유형의 접근법을 촉진하는 정치적 의지와 참여 역시 분명하게 존재한다.

바르셀로나에는 공동체에 의한 공공시설 관리를 지지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시민 참여의 역사가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1970년대 민주화 이행기 도시 투쟁을 조직한 주민 연합체, 1990년대의 자주관리적 건물점거운동의 발전, 2000년대의 반세계화 운동, PAH(모기지 피해자 플랫폼)의 설립, 그리고 인디그나도스Indignados[분노한 사람들]를 탄생시킨 보다 최근의 15M 운동이 있다. 15M 운동은 강력한 커먼즈 접근법으로 여러 도시 광장에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정치체제에 저항했다.[19] [20] 역사적으로 19세기 노동운동과 연관된 연합주의는 공동체 관리의 초기 실험을 위한 공간을 열어 놓았다. 시민 연합체는 시市의 GDP 중 8%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유산이다(Fontanils et al., 2018).

이러한 공동체 행동주의는 전통적 제도가 경제·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급진적 좌익 정당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의 출현을 낳았다. 정당 운동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들은 장기집권하고 있던 우익 정부로부터 바르셀로나를 "되찾아 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 출마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공동 작성된 선언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선언은 네 가지의 근본적 권리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권과 양질의 삶을 보장할 것,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정의에 기반해 경제를 부양할 것, 제도를 민주화할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질 것 등이 그것이었다.[21] 현재 이 시민 플랫폼은 시市에서 소수 여당의 역할을

19 PAH는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되어 이후 다른 많은 도시들로 확산된 도시 사회운동이다. 이것은 주택 접근성에 대한 혁신적 전략 수립 및 주택시장의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De Weerdt and Cabeza, 2015).

20 15M은 2011년 5월 15일 스페인에서 시작된 긴축정책 반대운동인 Movimiento 15M을 가리킨다.

21 2016년 5월 바르셀로나 엔 꼬무는 <어떻게 공동의 도시를 쟁취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지침을 발행했다. 이것은 새로운 스페인 지역주의 운동의 기원과 철학, 그리고 전략을 활동가들에게 설명하려는 취지로 바르셀로나 엔 꼬무의 국제 위원회에서 작성되었다. 지침은 아래로부터 유럽을 바꾸기 위해 '반란 도시' 네트워크의 결성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엔 꼬무의 전략에 상응하는 것이다.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의제에는 사회정의 및 공동체 권리의 보호, 참여민주주의 촉진, 부패 처리 제도의 도입, 그리고 새로운 도시 관광 모델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선거 승리는 "민주적 급진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 거버넌스 모델로 이행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것은 공공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서 시민들의 행동 권한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2015년 이후 시市는 도시 커먼즈 및 커먼즈 협업 경제의 견지에서 자신의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는 특히 주거권 활동가이자 신임 시장으로 선출된 아다 꼴라우 덕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바르셀로나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바뀌고 있는 도시에 해당한다(Utratel and Troncoso 2016). 그럼에도 도시 커먼즈 쪽으로 시市의 방향성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데 꼴라우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그런 식으로 바르셀로나에는 두 개의 차원(시민주도 및 시市주도)이 공존하고 있다.

바로셀로나의 맥락에서 도시 커먼즈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시민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공공기관 외부에서,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사하고 협력하는 실천. 이는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즉, 자주적 관리를 통해) 집합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나 시장이 이들 자원을 제공하는 통상적 방식에 대한 대안을 발견함으로써 자원이 공공선으로서 또는 개방적 접근성의 조건 속에서 가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22]

3.2 바르셀로나에서 커먼즈는 어떻게 공유 경제(협업 경제)와 관련되는가

도시 커먼즈와 공유경제의 관계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관계는 **커먼즈 협업 경제**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디지털 경제는 그것이 협업적이고 커먼즈 지향적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공유경제로 간주될 수 있다(Fuster Morell 2018). 푸스떼르 모렐(2019)에 따르면 커먼즈 협업경제는 — 디지털 플랫폼의 지원 속에서 — 분산된 동료 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적 소비, 생산, 공유 및 교환을 가리키며 이들 집단 및 사회 전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닐 고렌플로Neal Gorenflo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는 "전환적" 공유경제로서 여러 분야에서 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갈과 착취의 기업 형태("플랫폼 자본주의", Srnicek, 2016)와 직접적으로 대비된다.[23] 다시 말해 식품배달(예. 푸도라), 승차공유(예. 우버), 그리고 단기계약 또는 프리랜서 일자리(예. 태스크래빗) 플랫폼은 노동 착취를 발생시키며 운송자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사업상의 모든 위험을 떠넘긴다. 또한 (에어비엔비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주택 부족과 지역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그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디즈니화, 호텔화(Lee, 2016), 역사적 중심의 사회적 사막화(Semi 2015)를 가속화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플랫폼은 도시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악화시켜 과잉소비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커먼즈 협업 경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또한 포용적이며 분산화된 유형을 지지하며 생산자이자 의사결정권자라는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필요와 연계된 경제적 성장을 보장한다. 이것이 바르셀로나시市가 촉진하고자 하는 공유경제의 형태이다. 이것은 또한 도시 커먼즈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24]

바르셀로나 시市정부의 강점은 협업경제 정책의 생산 역시 협업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바르꼴라BarCola는 바르셀로나 시市의회와 도시 내 커먼즈 협업경제 부문간의 실무협의체로 커먼즈 지향적 도시 모델을 분석·평가·계획하는 한편 관련 공공정책을 위한 권고사항을 다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6년 시市당국은 커먼즈 지향적 동료 생산 및 협업경제 관련 공동 정책생산을 위한 국제포럼 프로꼬문스Procomuns를 지원했다. 포럼은 프로꼬문스 선언 및 공동 성명으로 막을 내렸다. 공동 성

22 인용문은 서울 미션 이전에 시市당국이 공유한 자료에서(공유 폴더에서) 발췌한 것이다.

23 https://www.smartcitiesdive.com/ex/sustainablecitiescollective/sharing-economy-conversation-neal-gorenflo/149186/참조.

24 푸스떼르 모렐(2019)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모델은 사회-경제적 혁신과 민주화의 네 궤적, 즉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 커먼즈의 개방적 지식, 순환경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여성주의 경제의 젠더적 관점이 조우한 결과이다.

명은 협업경제를 위한 공공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공정하고 존중을 받으며 착취 없는 노동조건의 촉진을 촉구했다. 포럼은 시민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자원 접근성을 지원하는 조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로꼬문스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로 발전했다.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는 바르꼴라와 프로꼬문스를 보충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번째 필수 요소이다. 그것은 122개의 프로꼬문스 정책 권고사항에 직접적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시의회의 웹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양한 제안을 둘러싼 토론에 참여했으며 제안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도시 계획으로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위를 망라했다. 가장 인기있는 제안들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데시딤은 바우엔스와 코스타키스(2014)가 강조하는 소위 '파트너 국가'에 부합하는 **수평적 보완성** 원칙의 이행을 분명한 방식으로 상기시킨다. 파트너 국가란 시민 행동주의를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도시를 돌볼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데시딤을 매개로 바르셀로나시市는 집합적 지성과 시민들의 의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직접적인 공공 정책으로 전환시킨다. 게다가 데시딤은 100% 무료 소프트웨어로서 시민들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체에 의해 민주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시민들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25]

그림 1. 바르셀로나의 커먼즈 협업 경제 공동 생산 틀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2017).

25 해당 정보는 http://www.eurocities.eu/eurocities/documents/Decidim-barcelona-WSPO-AZ9ATM에서 온 것이다. 다른 단체들도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4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데시딤을 사용하고 있다.

바르꼴라와 프로꼬문스, 그리고 데시딤은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변화의 압력이 혼합된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공공/민간/시민 사이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개방된다.

이러한 뼈대 위에서 바르셀로나 악띠바Barcelona Activa가 제안한 꼬무니피까도라Communificadora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26] 이것은 협업경제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과 조언, 그리고 지침을 제공한다. 꼬무니피까도라의 전망 속에서 커먼즈 협업경제란 발생한 지식을 공유하거나 참여적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업 생산을 디지털 도구와 결합하는 사업모델 또는 활동을 가리킨다.[27]

협업경제에 대한 시市의 헌신은 또한 2017년 "도시 커먼즈. 시민의 유산. 개념적 틀 및 활동노선 제안"(Castro, Fresnillo and Moreno, 2016)이라는 제하의 문건 작성으로 이어졌다. 이 문건은 지난 수 년간 도시에서 일어난 공동체 실천을 검토한 후 이러한 공동체 실천에 어떻게 제도가 동반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개념적이고 규제적인 틀을 최초로 제안한 문서이다.[28]

3.3 사례 연구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는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Ateneu Popular Nou Barris와 솜 에네르지아Som Energia, 그리고 구이피넷Guifi.net의 세 곳을 선정했다.

이후의 사례 연구 분석은 다음에 기초한다.

- 바르셀로나시市에 특별한 초점을 맞춰 공유경제 현상과 도시 커먼즈의 주제를 다룬 문헌 검토.
- 세 가지 사례 연구에서 확인되는 커먼즈 협업경제 사업을 비롯해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도시 커먼즈 사업 지도 제작. 지도 제작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 까마라 메노요Cámara Menoyo(2017)와 푸스떼르 모렐(2018)이 수행한 선행 연구에 바탕해 진행되었다.
- 2차 연구를 통해 수행된 사례 연구 방법론 및 세 가지 사례 연구를 다룬 기관 공식 자료 분석(Yin, 2004).

26 바르셀로나 악띠바는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다원적 경제의 관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권한을 육성함으로써 도시 내 경제 정책과 지역 발전의 부양을 담당하는 공공 단체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barcelonactiva.cat/barcelonactiva/en/all-about-barcelona-activa/who-we-are/index.jsp을 참조하라.

27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emprenedoria.barcelonactiva.cat/emprenedoria/en/programs/la-comunificadora.jsp을 참조하라.

28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조하라: http://lahidra.net/wp-content/uploads/2017/07/Patrimoni-Ciutada-Marc-Conceptual-v.3.01.pdf.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
Ateneu popular 9 barris

도시 커먼즈의 역사 및 특징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는 도시의 한 구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결집한 결과인 동시에 공동체 관리의 제도적 인정을 위해 투쟁하고 그러한 인정을 실행에 옮긴 선구자이기도 하다. 지역적 협력에 기반한 자치 제도로서 그것은 공공 문화 시설의 공동체 관리 모델이 어떻게 도시 거버넌스의 방법을 민주적으로 재창안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림 2.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64_Ateneu_Popular_de_Nou_Barris,_Arte.jpg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Spain license)

노우 바리스는 바르셀로나 북동부에 위치한 구역으로 공공 투자가 중단된 역사적 흔적이 새겨져 있다. 스페인의 산업화 시기(1950~1960)에는 유례 없는 인구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빈민가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기본적 서비스의 결여와 체계 없는 도시 계획은 주민의 자치조직에 기반한 역동적이고 연합적인 사회 구조의 형성을 자극했다. 1970년대 새로 문을 연 아스팔트 공장에 맞선 몇 차례의 저항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던 공장 건물의 점거(1977)로 이어졌다. 목표는 역사적인 "인민 문화 연합ateneos populares"의 모델에 따라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29] 불법 점거는 10년간 지속되었다. 1989년 아떼네우를 관리하는 비도데 노우 바리스Bido de Nou Barris가 주민들과 지역 연합체에 의해 결성되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이 공간은 지역의 자산이 되었다.

29 아떼네우 뽀뿔라르의 모델은 노동계급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의 복구를 주장해 온 스페인 노동운동(처음에는 문화적 연합체로 시작되었다)의 전통에서 생겨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es.wikipedia.org/wiki/Ateneo_popular을 참조하라.

그림 3. 1977년 주민들의 아스팔트 공장 점거
(출처: https://memoria.ateneu9b.net/?fbclid=IwAR2xlsyaWVL_kQ9SsuGPrhEn9sfJYG7iqHW0xTXPFMwciWJg1tg4L_w4nLM)

비도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회원수는 약 100명이며 아떼네우 뽀뿔라르 사업에는 140명의 사람들(자원봉사자 또는 보수를 받는 전문직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두 곳의 서커스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2015~2016년 119명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취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참여시키는 매개로 소셜 서커스를 활용한 몇 차례의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시르크 디베르Circ d'Hiver라는 이름의 전문 서커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콘서트, 연극, 인형극, 댄스 쇼, 전시회, 토론, 영화 등을 아우르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의 주요 요소들

문화 커먼즈(집합적 사용권이 있는 자원)와 도시 커먼즈(이것은 도시권을 지지하는 지역 연합체와 주민들의 사회운동으로부터 출현했다. Lefebvre, 1968)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는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30]

그것은 **자주적 관리** 및 관련 행위자들간의 역할과 임무 교대에 기반한 **집합적 거버넌스** 사례이다. 의사결정과정은 소셜 서커스 교육, 예술 생산, 프로그래밍,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등을 숙의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수준의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다. 하부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다룬다. 이들 위원회는 독자적 예산을 운용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의 시행을 관리한다. 관리위원회는 모든 비도 회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원한 회원 다섯 명이 4년 주기로 선출된다.
후안Juan(2018)이 상기하듯 아떼네우의 내부 민주주의는 "[..] 수직화 및 책임의 위임, 그리고 [..]수평성의 추구가 혼합"된 것이다(p. 43). 연합체의 모든 회원들은 잠재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집합적 점유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개방되었다.

30 도시권의 개념은 1968년 르페브르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는 공동 창조의 공간으로 도시를 복원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권은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과 점유, 사용의 권리를 통해 도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 관리가 책임을 스스로 조직된 공동체로 이전시키는 제도적 배치의 한 유형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제나 표준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도는 조력자가 되며 서비스와 시설은 커먼즈가 된다. 그것은 단지 행정자원이 아니며 (Font et al., 2015) 사회 전체가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의 사례 연구에서 비도는 도시 및 문화 자원을 관리하는 공식적 기관이다. 시市당국은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을 소유하게 되고 제도적 행위자와 연합체 간의 대화를 지원한다. 공공 서비스와 자주적 관리는 뒤섞인다. 여기서 집합적 관리는 경제적 과정의 재배치 및 통제에 기반하며 사회연대경제에 기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자원의 혼합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 원칙이다. 기금의 50%는 공공이나 민간의 기부금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50%는 자체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감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윤은 고용인의 급여(50%)와 활동(50%)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투자된다. 아떼네우가 직면하는 주요한 위험은 그것의 성공 모델이 도구화됨으로써 표준화된 방식으로 모방된다는 점이다.

솜 에네르지아
Som Energia

도시 커먼즈의 역사 및 특징

까딸루냐어로 "우리는 에너지이다"를 뜻하는 솜 에네르지아는 생산과 상용화 모두에 종사하는 스페인 최초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그것은 "풀뿌리 혁신"(Seyfang and Smith, 2007)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참신한 상향적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가들과 단체의 네트워크"(p. 585)이다. 실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는 (가령, 에너지, 식량, 물, 위생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혁신적 제안과 실천의 실험을 시작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모델을 제안해왔다(Seyfang, 2009; Smith, Fressoli et al., 2016; Smith, Hargreaves et al., 2016; Pellicer-Sifres et al., 2018).

그림 4. 이사회 및 기술팀원들
(출처: https://www.energy-democracy.net/?p=1050)

스페인에는 독과점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Barcia and Romero 2014). 다섯 개의 주요 기업이 국가 전력의 95%를 판매하는 한편 배전의 99.7%와 시장거래의 79.5%를 통제하고 있다(APPA 2013). 스페인은 전기요금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Tirado et al., 2014) 2020 재생에너지 전략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Montoya et al., 2014)[31]. 그리하여 정치와 규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Pellicer-Sifres et al., 2018)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강력한 행동주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행동주의는 솜 에네르지아와 같은 몇몇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이어졌다(Lillo and Pellicer-Sifres, 2014).

이 협동조합은 2010년 150명의 시민들과 더불어 까딸루냐 대학의 직원들과 학생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 7년 동안 참여한 인원은 47,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안적이며 적정 가격의 환경 영향이 적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다.[32] 민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풍력, 수력, 또는 태양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형태는 이러한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33] 솜 에네르지아는 회원들의 소비를 100% 충족시키는 충분한 전력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솜 에네르지아는 1. 회원들에 의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을 허용하고, 2.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3. 시민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4. 사람들에게 25년간 지속될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신감을 키워주며, 5.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합한 지붕을 가진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한 포용하는 모델을 실행하고 있다.

도시 커먼즈의 주요 요소들

솜 에네르지아는 스페인 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단체들"(2018년 현재 65개 단체)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조직구조를 지니고 있다(Riutort, 2015). 이들 단체는 의욕이 넘치고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자발적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과 절감 등의 주제를 논의한다. 이들 단체의 핵심적 요소로는 단체의 상향적 기원, 사전에 정해진 의제의 부재,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를 들 수 있다. 회원들의 참여는 물리적으로는 지역 회의와 전국적 연례 모임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는 잠재적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과 툴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1인1표의 권리를 갖는 총회(Asamblea General)와 일상적 운영상의 결정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Consejo Rector)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최종 결정은 풀뿌리로부터의 민주적 토론에서 나온다.

협동조합은 **"포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모든 회원은 자신의 회원자격을 다섯 명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100€의 회비 납부 없이도 조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조차 녹색 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포용적 접근법은 솜 에네르지아의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들과 산업계의 고객들, 그리고 시市당국 역시 회원이 될 수 있다.

31 스페인 재생에너지 행동 계획 2011-2020을 참조하라. http://pvtrin.eu/assets/media/PDF/EU_POLICIES/National%20Renewable%20Energy%20Action%20Plan/202.pdf

32 해당 정보는 REScoop MECISE에 의해 보고되었다. REScoop MECISE는 보다 지속가능하며 탈중심화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민들과 지역 당국을 참여시키는 유럽의 프로젝트이다.

33 이러한 가능성의 증가는 계약 건수 및 고용인 수에 모두 관련된다(현재 40명의 고용인과 수백 명의 자발적 활동가들이 있다).

솜 에네르지아는 협동조합의 이념,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재생자원에 기반한 지역 에너지 생산을 결합시키고 있으며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2014)가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라 명명한 바를 대표한다.[34] 그의 견해에 따르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민주적 소유와 거버넌스 등의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플랫폼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와 운영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가장 많이 기대는 사람들, 즉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여타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이다. "파트너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력자로 기능하는 공적 행위자에 기댈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조합의 설립자는 스페인 정부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FIT를 봉쇄하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FIT를 소급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발했다.[35] 이러한 이유에서 솜 에네르지아는 제너레이션 kWh Generation kWh라는 이름의 또 다른 기금조성 시스템을 검토하여 시장가격에 맞서는 신규 프로젝트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솜 에네르지아의 설립 이후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여덟 개의 다른 에너지 협동조합이 스페인에 생겨났으며 솜 에네르지아 모델은 솜 모빌리탓Som Mobilitat과 솜 꼬넥시오Som Connexió(Eticom.coop) 같은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에 의해 채택되기도 했다.[36] [37]

구이피넷
Guifi.net

세 번째로 고찰할 사례는 구이피넷이다. 이것은 스페인 농촌 지역과 마을, 그리고 농장에서 질 좋고 공정한 가격의 무선통신 및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공유 기반시설이다.

커먼즈의 역사 및 특징

엔지니어인 라몬 로카는 구이피넷을 "메시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개발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메시 네트워크"**란

>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기술·사회·경제적 프로젝트로서 커먼즈 거버넌스 모델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중립적인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38]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웹사이트가 보고하듯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노드만이 필요하며 인터넷 접속은 이 노드로부터 인근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무선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노드들은 다시 인접한 노드들과 무선으로 접속을 공유한다. 이것은 자원을 공유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공동체가 구축하는 유연하며 탈중심화된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창조한다."[39]

34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platform.coop/about/을 참조하라.

35 FIT는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가리키며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적 제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Feed-in_tariff를 참조하라).

36 솜 모빌리탓은 운송부문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스페인의 운송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창설되었다. 그것은 또한 협업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이미 운영 중인 기타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수행한다(https://www.sommobilitat.coop/en/).

37 솜 꼬넥시오는 단순한 전화사업 운영사가 아니다. 그것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협조적이며 지속불가능한 주류 운영사의 사업 모델에 맞서는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 창설된 집합적 프로젝트다.

38 guifi.net을 참조하라.

39 https://digitalsocial.eu/case-study/1/guifi-net을 참조하라.

이 네트워크는 2004년 창설되었다. 특별히 까딸루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유럽,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미국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까딸루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35,000개 이상의 건물이 연결되고 작동 노드가 포괄하는 무선접속 범위는 63,000km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18년 7월). 구이피넷은 2008년부터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 소관의 무선통신 운용자 명부에 (구이피넷 재단Guifi.net Foundation 명의의) 무선통신 운용자로 등록되어 있다.[40] 구이피넷 재단은 자발적 활동가와 네트워크 운용,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거버너스에 대한 감독을 지원한다.

그림 5. 창립자 라몬 로카 Ramon Roca
(출처:https://www.wired.com/2016/07/forget-comcast-heres-the-diy-approach-to-internet-access/)

기파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중립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협약"이다. 이것은 하나의 헌장으로, 오스트롬Ostrom의 저작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여러분에게는 네트워크 자체의 운용, 다른 사용자들의 권리, 또는 고의적 방해 없이 콘텐츠와 서비스의 흐름을 허용하는 중립성의 원칙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
2. 여러분에게는 네트워크 및 그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그것의 메커니즘과 원리에 관한 지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3.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방식대로 네트워크에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4. 여러분에게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권리 및 이러한 일단의 권리를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확장할 의무가 있다.[41]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하나의 혼합형 공동체가 출현했다. 개인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소기업, 정부, '기파이에 매장을 차리고 최종 사용자들에게 설치 및 안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십 개의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Gillmore, 201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42]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다.[43]

조직화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체는 기파이 실험실에서 주기적인 모임을 갖는 지역 단체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부조를 통해 공유 기반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온라인 서비스, 메일링 리스트, 포럼, 블로그, 지도제작 툴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웹사이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자유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보유 하드웨어의 범위는 선반 라우터의 전매권에서부터 오픈 소스 하드웨어 기기에까지 이른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에 의해 문서로 기록된다.[44] [45]

40 그것은 또한 인터넷 상에서 하나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CATNIX(까딸루냐 인터넷 상호접속점)에서 최대 30 Gbps의 속도로 트래픽을 교환한다. https://wiki.p2pfoundation.net/Guifi_Net을 참조하라.

41 R. Baig et al., "guifi.net: A crowdsourced network infrastructure held in common," (2015)을 참조하라. http://dx.doi.org/10.1016/j.comnet.2015.07.009 .

42 https://www.wired.com/2016/07/forget-comcast-heres-the-diy-approach-to-internet-access/을 참조하라.

43 2016년 현재 1기가 광섬유 접속의 경우 월 18~35 유로 수준이며 WiFi의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다.

44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을 참조하라.

45 해당 정보는 https://wiki.p2pfoundation.net/Guifi_Net#Characteristics를 참조했다.

커먼즈의 주요 요소들

구이피넷이 달리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입증되고 있다. 구이피넷은 광섬유 및 광대역 접속을 풀뿌리로부터 상향식으로 구축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중립적이며 개방적인 무료 크라우드소싱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현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이피넷은 인접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협업경제 활동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구이피넷에 대해 강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1. 구이피넷은 일종의 즉흥적인 크라우드펀딩 메커니즘에 의지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2. 구이피넷은 커먼즈의 경제적 효율성을 구현한다. 화폐 및 전통적이고 강압적인 시장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게 되고 모종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활기를 되찾는다(Sachs, 2010).
3. 개방형 기술을 옹호하는 사샤 마인래스Sascha Meinrath가 주장하듯 구이피넷은 "통신회사가 관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 지역 소유의 대규모 광대역 기반시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Gillmor, 2016).
4. 구이피넷은 시市정부와의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농촌을 비롯해 인구밀도가 낮은 기타 원거리 지역에서 고품질 접속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기반시설 해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Bollier and Helfrich, 2019).

이 마지막 양상과 관련된 것이 볼리어와 헬프리히(2019)가 기술한 바 있는 소위 공동 출자와 공유Pool & Share 접근법이다. 본 사례 연구 속에서 우리 역시 이러한 접근법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다. 실로 구이피넷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인터넷 접근성을 공유한다. 재단의 존재는 이러한 접근법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이며 거버넌스 모델에 참여한다. 실로 구이피넷 라이선스는 갈등 해결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상업적 운용자의 비용 보상 감독과 관련해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해두고 있다.

3.4. 토론

바르셀로나시市는 적극적으로 커먼즈를 장려하며 도시의 비전 자체에 이를 통합시킨다. 시市는 조력자로 행동하며 "오중 나선 거버넌스"에 관한 이아이오네의 명제를 상기시키는 공유 및 협업 거버넌스 모델을 뒷받침한다.[46] 시市당국은 스스로 공공과 공동체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위 "파트너 국가" 또는 포스터와 이아이오네의 용어를 쓰자면 "역량형성 국가"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앞서 사례 연구에서 보았듯 이러한 종류의 지원이 언제나 국가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통제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동시에 바르셀로나는 개인의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다. 시민들은 공유되는 협업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 장의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언제나 전향적이며 행동주의와 정치적 투신에 기반한 실험의 산실이다. 포스터와 이아이오네(2016)가 도입한 처음 두 가지 설계 원칙 — 다층적 거버넌스와 역량형성 국가 — 은 바르셀로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험주의와 기술 정의tech justice 역시 솜 에네르지아와 구이피넷과 같은 사례 분석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분석은 주로 이러한 처음 두 개의 원칙에 준거한다.

바르셀로나의 도시 커먼즈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된 사업만 하더라도 약 1,400개에 이른다) 이들 사례들은 커먼즈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47] 볼리어와 헬프리히(2019)가 강조하듯 "커먼즈를 평가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커먼즈는 자체의 특수한 유래, 문화, 인물, 맥락을 보여주는 특유의 흔적을 품고 있다"(p. 26). 그럼에도 커먼즈가 스스로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방식, 자원을 관리하고 공동체의 지향성을 장려하는 방식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볼리어와 헬프리히의 말을 빌리자면 "전세계에 걸쳐 커먼즈의 별자리를 확장시키는, 즉 커먼즈 우주Commonsverse를 만드는" 모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다.

46 서론에 요약된 포스터와 이아이오네의 다섯 가지 설계 원칙을 참조하라(Iaione, 2015a).

47 http://confrontations.org/wp-content/uploads/2016/12/19.-Presentation_M.-Fuster-Morell.pdf을 참조하라.

세 곳의 사례 연구는 이들이 적어도 두 가지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이들 커먼즈가 유래한 정치적 요구**: 주체와 과정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커먼즈의 추동력은 언제나 상황에 기반해 시민들의 필요가 표출된 것이었다(가령, 반反자본주의적 요구 또는 환경적 쟁점). 이것은 이들 커먼즈가 특정한 정당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커먼즈가 분명 특정한 지향을 구현한다는 사실이다.
2. **자주적 관리의 특성**: 커먼즈가 기존의 법적 체제와 공존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주적 관리의 양상은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커먼즈는 종종 민간 또는 공공부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전통적인 것에 비해 혁신적이다.

일반적으로 바르셀로나의 도시 커먼즈는 특정한 요구에서 유래하며 이것이 이들 커먼즈에 의미와 목표를 부여한다. 커먼즈는 하나의 특수한 커먼을 중심으로 결집한 공동체에 의해 일련의 규칙과 거버넌스 접근법을 수단으로 자주적으로 관리된다. 현재의 사례 연구는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비영리적 차원을 드러낸다. 까마라 메노요가 강조하듯 바르셀로나의 도시 커먼즈는 공간, 제도, 네트워크, 정치적 행위 및 과정이라는 (물질적인 동시에 비물질적인) 다섯 가지 상호보충적 차원 위에서 작동한다. 이 다섯 가지 차원은 모두 사례 연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및 국가의 역량형성 역할 외에 우리는 또한 **실험주의**에 대한 강한 지향과 기술의 강력한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모두 공정한 도시 환경을 창조하는 것, 또는 사회적 정의 및 사회적 포용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커먼즈는 일차적으로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세 개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차원을 나타내며 어떻게 도시 커먼즈가 대안적이고 보다 공정한 도시와 사회를 건설하는 하나의 방법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

제레미 디아즈 Jérémy Diaz

들어가며

퀘벡 커먼즈의 의의를 주제로 2018년 9월 20일자로 실린 한 독자 투고가 보여주듯 "도시 커먼즈" 운동은 몬트리올의 공적 무대에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공무원과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들로 구성된 27명의 공동 서명자들은 기존의 자원 관리 모델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르드부아르 Le Devoir>지紙의 독자들에게 "다르게 생각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사적이지도 않고 공적이지도 않은 커먼즈의 제3의 길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Waridel, 2018). 커먼즈는 자원의 사용을 소유권에 우선함으로써 배타적인 개인 소유권의 패러다임에 도전한다. 지적·사회적·물질적·환경적 자원을 모음으로써 부의 창조를 촉진하는 커먼즈의 잠재력을 고찰하면서 이 독자투고는 퀘벡에서 커먼즈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 새로운 집합 행동 및 시민 발의 패러다임의 출범은 퀘벡 경제의 중요 부문인 사회연대경제 속에서 몬트리올의 행위자들이 취하는 전통적 접근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라는 쟁점에 다소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빠르게 훑어보더라도2017년 몬트리올 커먼즈를 상호작용적으로 연결하려는 초기 시도부터[48] 커먼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전문 소셜 네트워크 파세렐Passerelles을 기반으로 최근 건설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49]

이 장의 목적은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를 다룬 논의들과 예비적 작업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1) 사회경제연대 혁신지구(TIESS), 사회경제 협의체인 샹띠에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UQAM[퀘백공립대학 몬트리올 캠퍼스] 생태이행연구교단, 솔롱 Solon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몬트리올시市 경제발전국 공무원들이 협찬한 일련의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2) 바르셀로나와 서울의 도시 커먼즈를 주제로 C.I.T.I.E.S가 주관한 두 건의 연구 과제 및 그 결과물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다.[50] [51]

본 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랜 사회적경제의 전통과 그 행위자들의 노하우로 인해 퀘벡, 보

48 Communautique. https://www.communautique.quebec/portfolio-items/remix-biens-communs/

49 Passerelles. https://passerelles.quebec/communaute/79/communs

50 https://www.tiess.ca/wp-content/uploads/2019/10/Communs_ateliers_echanges_final.pdf
https://www.tiess.ca/wp-content/uploads/2019/01/Synthese_ateliers_TVT-1.pdf

51 http://cities-ess.org/dossiers/communs-reinventer-ensemble-le-rapport-a-la-ville/

다 구체적으로는 몬트리올이 도시 커먼즈가 성장하기에 비옥한 땅임을 논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녹색 골목길Ruelles Vertes, 바띠망 쎄뜨 Bâtiment 7, 로꼬모씨옹LocoMotion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세 가지 사례 연구를 탐구한다. 각각의 사례에서는 커먼즈가 출현한 배경, 커먼즈의 주요 특징, 그리고 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시민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다.

4.1. 퀘벡과 몬트리올 도시 커먼즈의 배경

4.1.1. 퀘벡은 커먼즈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가?

퀘벡에서 커먼즈의 논리는 이미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많은 **사회연대경제(SSE)** 기업은 커먼즈와 공동 이익의 개념을 장려한다. 이러한 SSE 기업들은 혁신적 방식으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기존 시장 조건이나 공공정책 체계 내에서 충족되지 않거나 빈약하게 충족되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퀘벡은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의 리더이며 퀘백의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지원 정책은 퀘벡이 북미에서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사회 중 하나가 되는 데 일조했다. 퀘백의 사회적경제는 4,780만 캐나다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1,100개 이상의 집합적 기업**을 대표하며 다양한 활동 부문에서 약 **220,0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본법에 의해 2013년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적경제는 다음의 조직을 포괄한다. 1) 사회적 목적으로 경제 활동(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교환)을 수행하는 조직, 2) 집합적 소유, 민주적 관리,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하여 이윤과 수익 분배를 시행하는 조직, 3) 비영리단체(NPO)나 협동조합, 또는 상호회사. 사회적경제는 특수한 사회적금융 기관[52], 사업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53], 그리고 대표와 조정 서비스[54]를 제공하는 거대한 생태계에 의해 지원된다. 강력한 사회적경제의 존재는 지역 내 도시 커먼즈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4.1.2.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는 시민참여와 도시계획을 넘어서는 운동인가?

몬트리올은 사회적 자본, 사회연대와 문화적 활력, 그리고 수많은 시민참여로 잘 알려진 도시이다. 몬트리올에서 공동체 운동은 도시 공간을 재점유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운동의 일부이다. 실로 사적이거나 공적인 도시 공간을 재점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일어났으며 이는 물리적-공간적 전환 또는 사건에 기반한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실천들은 일반적으로 자생적이고 시민적이며 정치적으로 열정적이다(종종 일시적인, 순간적인, 대중영합적인popular, 반란적인, 임시적인 도시계획 등의 용어로 언급된다). 그것들은 도시 공간 사이의 틈을 때로는 불법적으로 장악한다("도시 게릴라전", "공간 해킹" 등). 도시 커먼즈는 심지어 토지 시장 및 주변 공간을 위한 사전 평가를 명분으로 의사결정체(지방정부, 개발자, 투자자)에 의해 다시 회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버려지거나 비어 있는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녹지, 공공 벤치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 상업 시설과 위락 시설 등을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세우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능동적 시민권과 함께 1980년 이후 시市정부는 시민들의 도시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많은 제도들을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시청 질의(1986), 옴부즈맨 창설(2002), 몬트리올 공공협의실 신설(2002), 몬트리올 인권 및 책임 헌장 서명(2005), 시민발의권 신설(2009), 시의회 회의 인터넷 방송(2010), 최근의 사례인 몬트리올시市 예산협의 공고(2020)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시市의 상임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교류위원회, 몬트리올 시민 자문단, 지역 협의체 등 시민 협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몬트리올은 정책 개발

52 피듀시 듀 샹티에, 리스크, 연대경제금고, 퀘벡 투자청, 필락시옹, 몬트리올 중소기업 지원조직

53 레조 코옵 협동조합 네트워크, 레스쁠라나드, CDRQ, INNOGEQ

54 부문별 네트워크, 몬트리올 지역 네트워크 CESIM, 전국적 수준의 사회경제 협의체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CQCM

에 시민들이 참여해 온 역사가 있고, 그것은 도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재생산하는 데 시市가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것을 촉구할 때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몬트리올의 초상, 즉 능동적 시민권 및 여건을 조성하는 공공정책의 결합은 도시 커먼즈의 출현에 강력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 커먼즈는 시민참여 정책, 그리고 잘 알려진 도시 공간 재점유 사업과 구별되는 몇 가지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 커먼즈는 공동체가 완전한 자율성 속에서(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여) 선택한 운영방식을 이행하는 한편, 자원의 고갈과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자원의 공유와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및 사용 규칙을 정의한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볼리어 David Bollier는 커먼즈와 관련해 "시민들(또는 사용자 공동체)이 투자자에 우선하는 일차적 이해관계자이며 이들 공동체의 관심은 판매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2007). 이것은 왜 도시 커먼즈가 종종 혼합형 모델의 형태를 띠며 시민 집단, 연합체,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시市 제도 간의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지를 설명한다. 예컨대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에는 시민 위원회가 조성한 녹색 골목, 지역 주민들이 되살리고 그 용도를 집합적으로 재고한 도시 습지와 폐건물들, 여기에 더해 모두에게 개방된 거대한 지도 데이터베이스(OpenStreetMap)나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위키피디아)를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잠재적 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해묵은 말이지만 오늘날 그 의의를 다시 되찾고 있는 "커먼즈"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커먼즈는 준거틀 및 일단의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도시, 공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4.1.3 몬트리올 도시커먼즈의 발전에 지역 공공기관이 수행한 역할은 무엇인가?

시市정부 내에는 생태적 이행과 관련해 커먼즈를 인식하는 흐름이 있다. 실로 커먼즈는 종종 생태적 이행을 달성하는 지렛대로 제시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017년 이후 신임 시장 발레리 쁠랑트 Valérie Plante를 비롯해 여당인 프로제 몽레알Projet Monréal 출신의 공직자들이 선출된 것은 지역적 수준에서 정치 문화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커먼즈의 정신과 공명하는 제도적 기획이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 메르시에-웨스트구 Mercier-Ouest와 아운식-까르띠에빌구 Ahuntsic-Cartierville의 참여 예산제도, 로즈몽-쁘띠뜨-빠뜨리구 Rosemont-Petite-Patrie의 다섯 군데 생활환경에서 진행된 시민참여 프로젝트, 몬트리올 도시혁신 실험실이 진행한 보행자 및 거리 공유 강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과도기적 도시계획 지원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에서의 우승 등을 이러한 제도적 기획의 사례로 들 수 있다. 프로제 몽트레알의 창립자들은 인간적 규모의 도시(Gehl, 2010), 그리고 활발한 대중 교통에 기반하여 몬트리올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촉진하기를 원했다.

4.2. 사례 연구

다음에 다루게 될 세 개의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돌보는 사례들이다. 녹색 골목길 프로그램, 바띠망 세뜨 Bâtiment 7 재생사업, 그리고 로꼬모씨옹LocoMotion 운송 사업이 그 사례들이고,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와 초점이 되는 도시생활의 구체적 양상은 서로 상이하다. 뒤의 두 사례에 대해서는 조너단 듀런드 폴코Johnathan Durand Folco, 까미유 부츠바흐Camille Butzbach, 그리고 베르트랑 푸스Bertrand Fouss가 CITIES 보고서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커먼즈 비교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2019)에서 수행한 사례 연구를 요약·정리했다.

녹색 골목길
Ruelles vertes(Green Alleyways)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몬트리올에서는 도심 구역의 뒷골목을 재점유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현재 몬트리올 전역에는 350개에 가까운 녹색 골목길이 있다(Binnette, 2017; Reeves-Latour, 2017; Mazoyer, 2018).

그림 5. 몬트리올 25e/26e/St-Zotique/Bélanger가에 위치한 녹색 골목길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TMTL_T34_IMG_1401.JPG?uselang=fr)

역사 및 배경

골목길은 몬트리올 도시 풍경의 고유한 특징이다. 19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골목길은 땔감을 운반하거나 마굿간에 접근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도로였다. 1980년대부터 장 드라뽀 Jean Drapeau 정부는 이들 공간의 재생을 통한 도심 구역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980년과 1988년 사이에 시市는 미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58개의 골목길을 재개발했다. 프로젝트는 주민들에 의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Mazoyer, 2018).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 공간을 재점유하는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아나벨 마조예Annabelle Mazoyer(2018)가 쓴 것처럼, "이제 손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지 시市의 지원을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다"(p. 12). 시민들의 참여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행동에 뒤이어 시민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市의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몬트리올을 상징하는 이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최초의 '녹색' 골목길이 탄생했다. 이러한 명칭은 이들 공간의 녹지 증대, 열섬 감소, 공기질 개선, 개선된 호우 관리 촉진, 생물다양성 증가, 풍경 미화 및 안전 증대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 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공간의 관리를 위한 집단적 규칙을 정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스스로 조직된

시민들에 의한 녹색 골목의 재점유는 도시 공동체의 역동적 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도시 커먼즈의 특징

자치구마다 진행 과정은 다르다 하더라도 녹색 골목길의 개발은 구체적으로 세 개의 주요 단계를 거쳤다(Mazoyer, 2018). 이러한 과정에는 세 명의 주인공, 즉 주민 **위원회, 생태지구, 그리고 자치구 정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55][56] 첫 번째 단계는 골목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민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 골목길 프로젝트의 수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조사결과가 긍정적이면 또 하나의 시민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들은 프로젝트 계획 모임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골목길 개발 계획을 생태지구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주민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모든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태지구의 역할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가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물색, 굴착공사 감독, 개발에 소요되는 식물과 토양, 장비 구입, 자치구의 프로젝트 승인 등). 세 번째 단계에서 자치구는 최선의 골목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선정과 함께 자치구는 생태지구의 도움을 받아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다음 자치구는 굴착공사를 진행하며 녹지 작업은 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는 부지의 유지 및 관리(가령, 살수, 제초 등)를 보장해야 한다.

영향, 과제 및 향후 프로젝트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생태지구는 320건에 가까운 녹색 골목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몬트리올의 19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는 참여한 시민들의 도움과 생태지구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개발된 녹색 골목길이 적어도 하나씩 있다. 그럼에도 생태지구를 낀 녹색 골목길의 절반 이상은 도시 중앙의 로즈몽-쁘티빠뜨리구, 르쁠라또-몽루아얄 Le Plateau-Mont-Royal, 메르시에-오슐라가-메종뇌브구 Mercier-Hochelaga-Maisonneuve, 그리고 남서부 구에 집중되어 있다(Gobeille, 2017). 현재 이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타의 도시 커먼즈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민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람들의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녹색 골목길의 날>을 제정하고 골목 정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립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대부분의 생태지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생태지구연합Regroupement des Éco-quartiers은 녹색골목을 장려하기 위해 <활기찬 녹색 둘레길 사업>을 출범시켰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을 연결하면 녹색 골목길은 직선 거리로 약 70km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5km에서 10km에 이르는 네 개의 신체 활동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이 둘레길은 몬트리올시市의 공식 관광 가이드에 등재되어 있다. 이동 장비도 개발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것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골목길의 다양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험적 프로젝트인 셀시어스Celcius 프로젝트가 현재 개발 국면에 있다.[57] 비영리 사회적경제 단체 솔롱이 개발하고 있는 이 실험적 프로젝트는 골목길 개발과 녹지조성 초기 단계에서 골목길 아래에 지열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참여자들의 집에 배전망과 난방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Solon, 2020). 이 프로젝트의 개발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55 몬트리올시市에는 19개의 생태지구가 있으며 1995년 시市에 의해 지정되었다. 이들 생태지구는 시민들 스스로가 수행하는 환경활동을 통해 생태-시민권을 장려하고 몬트리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6 몬트리올에는 19개의 자치구가 있다.

57 https://solon-collectif.org/celsius/ 참조.

바띠망 세뜨
Bâtiment 7(Building 7)[58]

바띠망 7은 예전의 **산업용 건물이자 사적지**로서 15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시민들이 점유하게 되었다. 현재 바띠망 7은 네 개의 공동 기업(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식료품 매장, 예술 학교, 두 개의 협동조합), 협업 제조 작업장(기계, 스크린 인쇄, 목공, 디지털 인쇄, 도자기, 사진), 공동 공간(다용도실, 회의실, 샤워장, 주방, 창고)이 함께 입주해 있는 곳으로, '꼴렉띠프 7 아 누 Collectif 7 à nous'에[59]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 산업용 건물을개조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6. 협동조합 식품점과 레스토랑 전면 모습.
(출처: 바띠멍 7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atimentsept/)

역사 및 배경

2000년대 초 급진적 활동가 단체가 뿌앙뜨-생-샤를 Pointe-Saint-Charles 지역에서 결성되어 2002년 라쉰느 꺄날 Lachine Canal의 재개장 이후 해당 지역과 노동계급이 겪고 있었던 도시 변화의 영향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배경으로 두 개의 활동가 단체, 뿌앙뜨 리베르떼르Pointe Libertaire와 자주관리사회센터Centre social autogéré(CSA)가 등장하였다. 이들 단체는 각각 2004년과 2007년에 결성되었다. 무정부주의적 가치를 지닌 이들 단체는 자전거 수리, 영화 상영, 콘서트, 대중교육 강좌, 회식 등을 비롯해 몇 차례의 공동체 행사를 개최했으며 2007년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의 영구적 장소에 결집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9년 5월 최초의 직접적 건물점거 행동이 세라꽁 Seracon 공장에서 조직되었다. 공장은 콘도미니엄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었다. 연대선언문에 서명한 70개의 단체, 그리고 500명의 시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위해 집결했다. 건물을 점거한 이

58 이 부분은 CITIES (2019)에 수록된 조나단 듀런드 폴코의 사례 연구를 번역 및 정리한 것이다. http://cities-ess.org/wp-content/uploads/2019/04/CITIES_fiche-communs-4_2.pdf

59 Collectif 7 à nous. '우리의 7(쎄뜨)'를 뜻한다.

들은 하루 만에 주방, 화장실, 침실, 그리고 무대를 설치했다. 이러한 '기정 사실'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활동가들은 다음날 쫓겨났다. 옛 캐나다 국립철도(CNR) 부지에 소재한 90,000 평방피트 규모의 바띠망 7은 이 단체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2009년 봄, 다수의 이질적인 무정부주의자들과 주민, 그리고 공동체 활동가로 구성된 '꼴렉띠프 7 아 누Collectif 7 à nous'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바띠망 7이 무상으로 공동체에 양도되어 사회-문화적 프로젝트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 커먼즈의 특징

바띠망 7의 매각은 민간개발자에 맞선 지속적인 시민 운동과 자치구의 지원이 결합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 산업용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마흐 Mach 그룹은 용도 변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꼴렉티프 7 아 누는 규제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이 개발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따라서 구청은 중재자로 나서 소유자로 하여금 1달러와 긴급 작업용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받고 공동체에 바띠망 7을 넘기도록 했다. 협약의 유형은 "공공과 공동체의 파트너십" 형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시민들이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투쟁한 결과로서 한 민간 소유자로부터 얻어낸 양도였다. 바띠망 7이 민간 또는 공공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도시 커먼즈**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과 관련해, 첫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4백만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이 중 2백만달러는 공적자금(퀘벡 정부와 몬트리올시市)으로, 백만달러는 마흐 그룹으로부터, 나머지 백만 달러는 채무를 얻어 조달되었으며 채무 중 75만 달러는 공동체 채권 발행으로 조달되었다.

바띠망 7의 개장에 앞선 장기적이고 치열한 대중 동원의 시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장애물이 나타났다. 관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행위자들로 구성된 연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꼴렉티프 7 아 누는 엄청난 독창성, 전략적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이상 지속된 이 투쟁의 부침을 견뎌낼 상당한 끈기를 증명해야만 했다.

또 다른 도전은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복잡성이었다. 바띠망 7에 18개 이상의 단체가 결집했고 이들이 집합적 자율성의 이상에 기반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적 운영의 실천을 원했기 때문에 소시오크라시, 자주관리, 참여 민주주의 등 몇 가지 대안적 조직 모델을 세밀하게 연구할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바띠망 7 특유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도전은 커먼즈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민간 및 공공 행위자들과의 복잡한 대외 관계였다. 바띠망 7에 인접한 그룹 소유의 부지와 관련해 마흐 그룹이 협조에 다소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기부자와 공공 기관이 규제와 책임 요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바띠망 7의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고수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해야만 한다 (Folco, 2019, p.2).

영향, 과제 및 향후 프로젝트

건물이 개발되면서 여러 활동 부문에서 제안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장 이후 바띠망 7은 100여 개의 활동, 행사, 교육, 문화의 밤 등을 유치했다. 2018년 4월 바띠망 7은 운영에 참여하는 100명의 적극적 회원, 7명의 고용인, 그리고 대략 700명의 참여자들을 확보했다.

마지막 도전과제는 생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바띠망 7이 지역에서 이목을 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 생태 젠트리피케이션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공 또는 시민의 개입(공동체 정원의 조성, 산업부지의 복구 및 오염제거, 녹지 조성, 마을 재생)이 경제적 취약 인구의 이주와 배제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것이 복합적이며 비자발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바띠망 7의 회원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관리의 목표는 "모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변화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일부 생태주의자들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노동계급이 소비하는 식품을 갖춘 식료품 매장, 자유로운 다용도 공간, 적정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공동체 차고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다양한 대중교육 활동, 인식 제고 및 시위 활동을 진행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고 있다 (Folco, 2019, p.3).

로꼬모씨옹
LocoMotion[60]

2017년에 시작된 로코모션 프로젝트는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는 지역 규모에서 진행되는 모빌리티 공유 프로젝트”로 주민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반경 500m에서 750m 이내의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Butzbach and Fouss, 2019).

역사 및 배경

로즈몽-라쁘띠뜨빠뜨리구의 시민 의견수렴과 비영리 사회적경제 단체 솔롱의 운송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로코모션 프로젝트는 운송 방식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고 지역 차원의 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차량(승용차, 자전거, 트럭 등)은 공동의 시민 재산(공동 "차량")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집합적으로 관리되며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 수량과 사용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시범 프로젝트는 2018년에 시작되었다.

로코모션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에게 개인이나 기관(솔롱이나 몬트리올시市 등)에 속한 **승용차나 이륜차(자전거 트레일러, 전기자전거, 카고 바이크) 등의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디지털 서비스(예. 구글 달력, 스마트 자물쇠)를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유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Butzbach and Fouss, 2019, p.2).

그림 7. 로꼬모씨옹의 공유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 트레일러 (출처: Solon https://solon-collectif.org/locomotion/)

도시 커먼즈의 특징

시범 프로젝트는 세 군데의 생활 환경(대략 세 개의 지구)에서 실시되었다. 각 생활환경 단위에서는 솔롱의 직원 한 명과 시민 대사들이 운송차량 관리에 참여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중화 수단**을 동원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Butzbach and Fouss, 2019, p.2).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단순한 요금체계가 적용되었다. 요금 계산은 이윤의 발생 없이 가능한 한 비용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러한 요금 체계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며 동일한 커먼즈 논리에 따라 프로젝트의 재정이 스스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용 기반 가격산정, 해당 솔루션 시행을 원하는 타 지역 당국을 위한 코칭 및 컨설팅, 커먼즈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보조금 물색 등 몇 가지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Butzbach and Fouss, 2019, p.3).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주관 단체인 솔롱에게 몇 가지 파트너십이 필요했다는 점은 언급해야 한다. 이 단체는 프로젝트를 **지역에 밀착시키기 위해 지역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0 이 부분은 CITIES 보고서(2019)에 수록되어 있는 까미유 부츠바흐와 베르트랑 푸스의 사례 연구를 번역하고 정리한 것이다.
http://cities-ess.org/wp-content/uploads/2019/04/CITIES_fiche-communs-8_2.pdf

이러한 사업체들은 몇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신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자전거 트레일러용 부품, 승용차 운행일지 등) 수령 장소 제공, 가게 앞에 주차된 트레일러 관리, 프 로젝트 관련 회의 장소 제공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솔롱이 데자르댕 보험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보험상품이 없다는 점은 실험의 주요한 장애물이 되었으며 소규모 초기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적 상품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었던 데자르댕 보험의 역량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Butzbach and Fouss, 2019, p.3).

영향, 과제 및 향후 프로젝트

로코모션 프로젝트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 걸쳐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각 생활환경 단위에서의 사회조직 및 소속감의 강화, 여타의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제고 등이 이루어졌다(Butzbach and Fouss, 2019, p.3).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장애물과 과제들도 생겨났다.

먼저 기술적 문제와 함께 사용자가 일부 관리툴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여 과정이 복잡해진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구글 스위트 Google Suite는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다. 또 다른 도전은 시제품 개발 국면의 차량 공유를 위한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이었다. 적용가능한 보험 상품의 유무는 시스템의 실행가능성에 결정적이다. 프로젝트 이전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차량 공유 시스템 내 차량에 적용 가능한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직면한 도전 중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대중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들의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 참여자들 간의 신뢰 또한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기존 '핵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낯선 참여자를 소개시키는 것은 실로 하나의 도전이었으며 특히 차량 대여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툴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습관을 자신들의 일상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충분한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참여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몇 번의 실패 이후에는 참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공유 공동체의 자율화, 사업모델의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조건 파악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Butzbach and Fouss, 2019, p.3).

4.3 토론

이들 세 가지 사례 분석은 일단의 사용자들(골목길 위원회, 꼴렉띠프 7 아 누, 로코모션 대사들)에 의한 공동 자원(골목길, 건물, 차량)의 요청이 집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매개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유연한 의미에서의 "도시 커먼즈", 즉 사용을 중심으로 한 집합적 실천을 통해 자원의 커머닝에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시민주도 사업의 양상을 보여준다. 녹색 골목길과 로코모션의 사례는 에르베 데팔바르Hervé Defalvard와 제네비에브 퐁텐느Geneviève Fontaine(2018)가 정의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시 커먼즈"(즉,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되고 거버넌스와 권리 분배에 대한 스스로의 규칙을 정하는 것)를 온전히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녹색 골목길의 경우 공유되는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로코모션의 경우에는 솔롱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커먼즈의 발전을 감독하고 사용 규칙을 지도하는 외부의 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행정적이고 법적인 규칙과 절차에 적응해야 하는 도시 환경에서는 예상될 수 있는 바이다.

4.4 결론

제시된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세 가지 주요한 도전이 몬트리올 행위자들의 앞에 놓여 있다(CITIES, 2019). 첫 번째는 **커먼즈 접근법의 복잡성**이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과 법적인 규제틀이 개발되고 있지만 로코모션의 사례가 보여주듯 당분간 이들 프로젝트는 현행 규제를 "손보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속하지도 않고 민간부문에 속하지도 않는 행위자들이 커먼즈의 논리 속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의 도시 커먼즈는 여전히 혁신적 형태의 시민 조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제도를 적응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은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시 커먼즈 구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커먼즈 프로젝트는 공동 자원의 관리에 **"커머너들"의 강력한 동원과 참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피로 등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제약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헌신이 때로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동원과 참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커먼즈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

결론

이광석 Kwang-suk Lee
이현아 Hyun A Yi

커먼즈라는 잊힌 말이 대단한 기세로 되살아나고 있다. 전세계 도시들은 커먼즈가 자신들의 도시적 배경 속에서 역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탐구하고 있다. 서울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몬트리올은 단지 이러한 많은 도시들 중 세 곳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1장에서 서울의 커먼즈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공동 자원을 공유해 온 다양한 실천들이 논의되었다. 두 번째 절에서는 2019 C.I.T.I.E.S. 서울 연구파견 참가자들의 관찰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 기반 사업들의 주요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강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을 다룬 2개의 장에 이어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주목할 만한 도시 커먼즈 사업 사례들을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서울에서의 아홉 차례 현장 방문, 그리고 여섯 건의 국제 사례 연구가 탐구 되었다.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 사례들이 주는 주요 교훈들

서울에서의 현장 방문,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을 배경으로 한 여섯 건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포스터와 이아이오네의 오중 나선 집합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중요한 행위자** — (1) 시민들과 (2) 역량형성 국가(또는 이 경우에는 시市정부) — 는 이 세 도시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닥으로 이것은 또한 예비적 사례 비교를 위한 분석적 렌즈로 기능할 수 있다.

세 도시 모두에 해당하는 이러한 두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다.

1. **바르셀로나**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시민 풀뿌리 운동, 그리고 커먼즈의 여건을 조성하는 시市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개입이 동시에 존재한다성 이들은 함께 시민들에 의한 커먼즈의 자주적 관리를 유도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2. **몬트리올**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시민 풀뿌리 운동이 존재해 왔으며 시 정부가 생태적 이행과 관련해 커먼즈를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커먼즈의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자율적 거버넌스가 아닌, 외부 기관 (녹색 골목길의 경우 공공 기관, 로코모션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단체)이 이를 관리한다.
3. **서울**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시민 풀뿌리 운동이 존재해 왔으며 현재는 시장의 강력한 정치적 개입으로 커먼즈를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유 사업은 하향적 접근법과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이 혼합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자주적 관리를 유도하지는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커먼즈 사업은 **지역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 사업들은 해당 지역에 근거한다. 아떼네우 뽀뿔라르 노우 바리스(시민들의 집합적 공공 제도 관리), 솜 에네르지아(재생 자원을 통한 시민들의 집합적 전력 관리), 그리고 구이피넷(탈중심화된 P2P 인터넷 공유)은 공적 공간, 에너지 생산, 그리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점유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특수한 필요와 바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시민들에 의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몬트리올의 녹색 골목길(시민들에 의한 공적 • 사적 골목길의 녹지 조성), 바띠망 7(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토지의 시민 점유), 그리고 로코모션(구역 규모에서 진행되는 차량 공유)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녹색 골목길 사업은 본래 몬트리올시의 프로그램이긴 했더라도 그러하다. 사업들이 100%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바띠망 7과 로코모션의 바탕에 있는 시민 집단은 사회적 경제 단체들 — 바띠망 7의 경우는 꼴렉띠프 7 아 누, 로코모션의 경우에는 솔롱 — 이다.

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운동과의 연계는 서울에서도 역시 커먼즈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 시너지 효과의 잠재력이 있음을 함축한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몬트리올과 마찬가지로 서울 역시 사회적 경제 등 이미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시민사회운동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집합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길 원하는 시민들에게 구체적 조직 형태(가령, 협동조합, 비영리 기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 시민운동(가령, 노동운동)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는 또한 커먼즈가 지역공동체와 그것의 필요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하향적 접근법에서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물과 숲 등의 생계 자원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은 형성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논점은 서울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의 도시 자원들과 시민들을 어떻게 다시 결합시키고 나아가 스스로 결집하고 이러한 결집을 유지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소규모 시민 주도 커먼즈 사업을 <공유도시 서울> 정책에 포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 이들은 사회적 경제 단체(즉, 비영리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가 빈번하다 — 에게 제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민간 기업조차 사회적 경제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에서는 오직 비영리 협동조합과 상호회사만이 사회적 경제 단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 단체를 커먼즈의 한 형태로 장려하는 경우에는 법적 형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로서 시민들이 갖는 중심적 역할과 조력자로서 시市정부가 갖는 지원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공유도시 서울' — 커먼즈로서의 도시에 대한 박원순 정부의 열망을 한 단계 진전시킬 핵심 기본 정책 —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도시 서울'로 향하는 길

1. 커먼즈 이니셔티브 발굴 및 지원, 커머너 양성

기존의 공유도시 서울에서 접근하던 시민상과 달리 커먼즈를 구성하는 적극적 주체로서 서울 시민에 대한 지위나 위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이제까지 서울시는 시민을 수요자나 체험자 수준으로 두고 시정부는 일종의 서비스 공급자 혹은 전통적인 대민 공공 혜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흔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을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고, 시민을 공동 협업과 협력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대하는 접근에 무심한 측면이 크다. 오히려 서울을 커먼즈 도시로 성장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후자의 협력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우선순위를 잡아야 한다. 즉, 향후 커먼즈적 도시 정책은 보다 시민 자율의 공유 가치 생성을 독려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공유 자원의 배치 및 공유 관계망의 효율성 확산이란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시민은 단순히 이의 수동적 소비나 '협력적 소비' 정도의 지위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커먼즈의 시민은 도시 자원을 둘러싼 공동생산의 가치 주체로서 공생공락의 삶을 도모하는 실질적 주인공으로 승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 공유(커먼즈)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구성하는 플랫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도시 약자를 위한 포용적 접근, 도시 자원의 생태 순환적 접근을 위한 **시민 자율의 과제와 참여 방식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략 1.** 서울시는 제3 섹터(사회 연대 경제와 시민 자율의 공동체) 주도의 공생적 가치 확산을 촉진하며, **국가-시장의 2원 구도에서 국가-시장-커먼즈 지향의 시민 공동체운동**이라는 3원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공유사업 관련해 지원하는 주요 행위자들, 즉 디지털 플랫폼기업, IT스타트업, 공유기업, 민간단체 등에 집중된 정책을 벗어나, 좀 더 시민 자율적 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 중심**의 공유(커먼즈)도시 지원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상 현재 지역 자치구의 공유 사업도 자원 대여와 공공 대민 서비스 개념에 머물고 있고, 영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시장 플랫폼 기업들 마냥 호혜 없는 '공유경제'의 시장 생리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점에서 지원의 방향이나 대상을 제고하는 모색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단체의 긍정

적 사례와 실험들을 확산하면서도 커먼즈적 호혜의 가치를 도모하는 시민 자율의 마이크로 커먼즈운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양면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 **전략 2.** 시민들이 커먼즈적 자율 공동체들을 만들고자 할 때 이의 *민주적인 소유와 분배 구조 마련과 사회적 증여 방식의 확대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투자 매칭, 기술지원, 교육 등 파트너십과 협치* 등 시정부의 적극적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커먼즈 조직체들의 자생적 성장을 도울 **중간 매개 조직 형태의 도시커먼즈 랩의 커먼즈 인프라 혹은 인큐베이터 지원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겐트시의 '도시커먼즈 랩'이나 '협의체' 모델에서 보는 것처럼, 커먼즈적 공생공락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인 커먼즈 지원체 조직 혹은 비영리 재단의 구성이 유용할 수 있다.
- **전략 3.** 지역 도시민들의 '도시권'을 반영해 도시와 환경 문제에 대한 데이터 접근과 공개, 그리고 **도시 자원 활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 유무형 자원 관련한 오픈소스형 지식, 이론, 스킬, 사례 등의 축적된 경험들을 사용하고 이를 시민 공동생산의 가치로 전환할 자유로운 창의적 개입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2.조례 개정

- 우선 서구 커먼즈로서의 도시 정책과 달리, '공유도시 서울'은 '공유', '커먼즈' 등 개념적 혼동, 그리고 이에서 촉발된 공유(쉐어)도시와 공유(커먼즈)도시의 정책 지향의 혼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서울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2015. 5)의 '공유' 개념 정의를 커먼즈적 **호혜와 협력 관계나 가치가 반영된 정의법으로 시급히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애초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는 이 문구는 공유경제의 일반 명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공유(커먼즈)란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 유무형 자원을 시민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 나누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를 공동 생산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이다."

3. 연구 및 국제 교류

- **국내외 커먼즈 사례를 향후 공유도시 정책 에 반영하려는 노력 및 현장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자생적 커먼즈 사례로 언급되는 사례들이 이제까지 공유도시 사업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가령, 공덕 경의선 공유지 코뮌, 민달팽이 등 청년주거공간 실험, 공동체 은행 빈고, 농지 살림 운동, 인천 배다리 공유지, 예술가 커뮤니티 자립의 공유성북원탁회의, 사회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서울혁신센터, 새로운 협동조합 실험, 특정 마을 공동체의 공동토지 매입 후 공동자산화하는 실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내 자생적 커먼즈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향후 커먼즈적 지향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해외 관련 커먼즈 단체와 인사들과의 지속적 협력과 연대, 경험 교류를 유지하는 일은 더욱 의미가 있다. 커먼즈적 전환 도시 기획이 가능한 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숙고하고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단순히 기존 공유도시 정책에서 주로 취했던 시장 혁신의 스타트업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자율의 공생과 호혜의 '커먼즈' 모델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 공유(쉐어)도시 대 커먼즈도시 정책 지향 비교 정리

구분	공유(쉐어) 도시	커먼즈 도시
공유 의미	쉐어링	커머닝
추진력	유무형 자원 할당 및 매칭	시민 자율의 호혜 협력 관계 구성
가치	효율성, 편리성	협동주의, 공동생산
목표	도시 자원 효율적 공유	시민 공동자원 관리
주요 행위자	디지털 플랫폼기업, IT 스타트업, 공유기업,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플랫폼 협동조합, 노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자율연합
효과	4차산업혁명의 일환(공유경제 활성화), 도시문제 해결	도시문제 해결, 도시전환, 시민참여
지원	선택적 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	시민주도형 커먼즈 활동 지원
평가	공유 촉진위원 예비/본 심사	도시커먼즈 가치 지표 측정 반영

출처: 2019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단순히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동원의 목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필요, 주민 집단 사이의 반목(가령, 세대차이), 그리고 주민들의 능력과 의지 등 지역에 특수한 동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위자인 Co-City 거버넌스 모델 속에서 바르셀로나와 몬트리올의 사례, 그리고 서울의 <공유도시 서울> 정책이 지닌 과거와 미래의 지향들을 검토한 바에 따라 사회적 금융, 사회적 벤처 기업, 그리고 지역의 사업 행위자들의 새로운 역할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로서의 도시(Foster and Iaione 2016; 2018)를 향한 서울의 진전은 제1원칙(집합적 거버넌스)와 제2원칙(역량형성 국가)으로부터 시작해 Co-City의 원칙들을 서울의 배경이 지닌 고유한 필요와 동학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 문헌

들어가는 말

서울특별시,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2019). 2019 미래혁신포럼 자료집. 현장 제공.

Bernardi, M., Iaione, C., Prevete, C. (2018). Home pooling: Applying co-governance to the housing sector. Sociologia del Lavoro, 152 (4), 155-173.

Bollier, D. and Helfrich, S. (2019).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C.I.T.I.E.S. (2020). Final report: 2019 Barcelona and Montreal study mission to Seoul on sharing economy and urban commons.

Festa, D. (2016). Les communs urbains : L'invention du commun. Tracés, 2016(16), 233-256. https://doi.org/10.4000/traces.6636

Folco, J., Espiau, L. (2019). Introduction and Mise en Contexte. In 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 http://cities-ess.org/dossiers/communs-reinventer-ensemble-le-rapport-a-la-ville/

Foster, S. and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and Policy review, 34, 281-349.

Foster, S. and Iaione, C. (2018). Ostrom in the Cit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Urban Commons. In Hudson, B., Rosenbloom, J. and Cole, D. (eds), Routledge Handbook of the Study of the Commons. London, UK: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162782.

Harvey, D. (2012). The Creation of the urban commons. In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New York: Verso.

Iaione, C. (2015). Città e beni comuni. https://territorio.regione.emilia-romagna.it/paesaggio/formazione-lab-app-1/documenti/iaone_citta-e-beni-comuni

Iaione, C. (2015). Governing the urban commons.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7(1), 170-221.

Iaione, C. (2017). The right to the co-city.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9(1).

Kostakis, V., Bauwens, M., Niaros, V. (2015). Urban reconfiguration after the emergence of peer-to-peer infrastructure: Four future scenarios with an impact on smart cities. In Araya, D. (ed.), Smart Cities as Democratic Ecologies, 116-124. Palgrave Macmillan.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환경사회학회연구 ECO, 20(1), 399-442. 한국환경사회학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15857

정영신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119-16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2266

Iaione, C. (2017). The right to the co-city.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9(1).

2장

서울특별시. (2012).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2015). 공유도시 2기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2019).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9).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9). 2019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3장

APPA (2013). Estudio del impacto macroeconómico de las energías renovables en España 2013. http://www.appa.es/descargas/Informe_2013_Web.pdf.

Barcia, J. and Romero, C. (2014), Alta tensión: Por un nuevo modelo energético sostenible, democrático y ciudadano, Icaria, Madrid.

Bauwens, M. and Kostakis, V. (2014), Towards a New Reconfiguration Among The State,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Journal of peer production, 10(10). http://peerproduction.net/issues/issue-7-policies-for-the-commons/peer-reviewed-papers/towards-a-new-reconfiguration-among-the-state-civil-society-and-the-market/.

Bollier, D. and Helfrich, S. (2019).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Cámara Menoyo C. (2017). Urban commons: lessons from Barcelona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Doctoral Programme. UOC, IND+I Science 2017, Barcelona.

Castro, Fresnillo and Moreno (2016). Comuns urbans - Patrimoni Ciutadà. Marc conceptual i propostes de línies d'acció, Ajuntament de Barcelona – Regidoria de Participació i Districtes – Direcció de Democràcia Activa.

Font, J., Ojeda, H., Urbano X. (2015). La gestión comunitaria en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Periódico Diagonal. https://www. diagonalperiodico.net/movimientos/25987-la-gestion-comunitaria-la-economiasocial-y-solidaria.html.

Foster, S. and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and Policy review, 34, 281-349.

Fuster Morell M. (2018). Qualities of the different models of platforms. In Fuster Morell M. (ed) Sharing Cities: A worldwide cities overview on platform economy policies with a focus on Barcelona. Sehen.

Gillmor, D. (2016). Forget Comcast. Here's The DIY Approach to Internet Access. Wired. https://www.wired.com/2016/07/forget-comcast-heres-the-diy-approach-to-internet-access/.

Gómez Fontanils G., Fuster Morell M., Senabre E. (2018). Barcelona sharing ecosystem: A timeline. In Fuster Morell M.(ed) (2018) Sharing Cities: A worldwide cities overview on platform economy policies with a focus on Barcelona. Barcelona: Sehen.

Juan, M. (2018). Les communs urbains à Barcelone: vers une réinvention de la gouvernance territoriale? Espaces et sociétés, 2018(4) n° 175, 35-49.

Lee, D. (2016). How Airbnb short-term rentals exacerbate Los Angeles's affordable housing crisi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arvard Law & Policy Review,10, 229-255.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Lillo, P. and Pellicer-Sifres, V. (2014). Analysing the influence of the energy model on fuel poverty and the role of citizenship mobilisation: A case study of the platform for a new energy model in Spain. Queen's Political Review, 2 (2), 25-45.

Montoya, F. G., Aguilera, M.J., Manzano-Agugliaro, F. (2014).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Spain: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33, 509-531.

Pellicer-Sifres, V., Belda-Miquel, S., Cuesta-Fernandez, I., Boni, A. (2018). Learning, transformative action, and grassroots innovation: Insights from the Spanish energy cooperative Som Energia,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2, 100-111.

Riutort, S. (2015), Reapropiación popular de la energía en los albores de una transición incierta. Una contribución a partir del análisis de caso de Som Energia, PhD Dissertation, Universitat de Barcelona. http://www.tdx.cat/handle/10803/380162.

Sachs, W. (2010). Development: The rise and decline of an ideal. Encyclopedia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Wuppertal Paper No. 108).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epub.wupperinst.org/frontdoor/deliver/index/docId/1078/file/WP108.pdf

Scholz, T. (2014). Platform Cooperativism vs. the Sharing Economy. Medium.com. https://medium.com/@trebors/platform-cooperativism-vs-the-sharing-economy-2ea737f1b5ad#.575nndfdq.

Semi G. (2015). Tutte le città come Disneyland? Bologna, Il Mulino.

Seyfang, G. (2009). The new economics of sustainable consumption: Seeds of chang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Seyfang, G. and Smith, A. (2007). Grassroots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new research and policy agenda. Environmental Politics, 16 (4), 584-603.

Smith, A., Fressoli, M. et al. (2016). Grassroots Innovation Movements. Routledge, Oxon.

Smith, A., Hargreaves, T. et al. (2016).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energies: Three perspectives on grassroots innov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8 (2), 407-432.

Srnicek, N. (2016). Platform Capitalism (Theory Redux), New York, Wiley.

Tirado Herrero, S., Jiménez Meneses, L., López Fernández, J. L., Martín García, J., & Perero-Van-Hove, E. (2014). Pobreza energética en España. Análisis de tendencias. Asoc. Cienc. Ambient. ACA Madrid.

Utratel, A.M. and Troncoso, S. (2016). The Commons Collaborative Economy Explodes in Barcelona. http://commonstransition.org/commons-collaborative-economy-explodes-barcelona/.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5th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4장

C.I.T.I.E.S. (2020). Final report: 2019 Barcelona and Montreal study mission to Seoul on sharing economy and urban commons.

Binette, Karel. (2017). Le développement local intégré et la mobilisation citoyenne : Le cas des ruelles vertes dans l'arrondissement de rosemont-la petite-patrie à montréal. Maîtrise en géographie, UQAM. https://archipel.uqam.ca/10912/1/M15264.pdf

Bollier, D. (2007). The growth of the commons paradigm. In Charlotte Hess and Elinor Ostrom (eds.),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27–40. Cambridge, MA: MIT Press.

Butzbach, C. and Fouss, B. (2019). LocoMotion. In 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 http://cities-ess.org/wp-content/uploads/2019/04/CITIES_fiche-communs-8_2.pdf

Defalvard, H. & Fontaine, G. (2018). Construire les PTCE comme des communs sociaux : quel rôle pour les pouvoirs publics ? RECMA, 349(3), 56-70. DOI:10.3917/recma.349.0056.

Durand Folco, J. (2018). Montréal, ville participative? Entre rêve et réalité. La Presse. http://plus.lapresse.ca/screens/fc4993d8-0f8b-45f3-a365-dac78f4634a4__7C___0.html

Durand Folco, J. (2019). Bâtiment 7. In Les Communs Urbains: Regards croisés sur Montréal et Barcelone. http://cities-ess.org/wp-content/uploads/2019/04/CITIES_fiche-communs-4_2.pdf

Gehl, J. (2010). Cities for People, 288. Island Press.

Gobeille, L. (2017, 29 April). Les multiples facettes des ruelles vertes. Le Devoir. https://www.ledevoir.com/opinion/chroniques/497299/les-multiples-facettes-des-ruelles-vertes

Mazoyer, A. (2018). Analyse sociologique de l'émergence du phénomène des ruelles vertes sur l'île de Montréal, Maîtrise en sociologie, UQAM, https://archipel.uqam.ca/12250/1/M15864.pdf

Reeves-Latour, Jonathan. (2017). La représentation du bien-être en contexte de verdissement urbain : Le cas des ruelles vertes de l'île de montréal. Maîtrise en sciences de l'environnement, UQAM. https://archipel.uqam.ca/9951/1/M15097.pdf

Solon (2020). Un réseau de chaleur géothermique dans nos ruelles! https://solon-collectif.org/celsius/

Waridel, L. (2018, 20 September). La pertinence des communs. Le Devoir. https://www.ledevoir.com/opinion/idees/537180/la-pertinence-des-communs

부록 1
2019년 C.I.T.I.E.S. 바르셀로나 및 몬트리올 서울 연수 방문기관 목록

기간
2019.9.30.~10.4.

9/30
- 월드카페 형식 아이스브레이킹
- 서울시 공유도시 서울 발표
- 빈고 방문
- 모아 방문

10/1
-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
  - a) 상사4동 앵커시설 발표
  - b) 암사동 앵커시설 발표
- 미래혁신포럼
  - 솔방울 커먼즈 발표

10/2
- 연수단 1차 전체토론
- 세운상가 방문
- 헬스브릿지 방문
- 문화비축기지 (비빌기지) 방문

10/3
- 보스아고라 방문
- 연수단 2차 전체토론

10/4
- '커먼즈로서의 도시를 꿈꾸다' 공개 세미나 (서울혁신파크)
- 서울혁신파크 옥상 공유 방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